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2호 HYUNBULNEWS.COM 2026년 1월 14일(음력 11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조계종은 1월 8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불기 2570년 병오년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운데)를 모시고 법회장으로 이동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오른쪽)과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 사진 제공=조계종

"모두가 '良馬' 되어 제 역할 다해야"

〈양마〉

조계종, 8일 통도사서 신년하례
성파 스님, '양마' 비유 화두 제시
말의 해 맞아 던진 수행 메시지
진우 스님, 사회적 역할 강조해
'승가 교육 · 복지 강화' 다짐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양마(良馬)는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천리를 달리지만, 둔마는 채찍을 맞아야 비로소 움직입니다. 병오년, 사부대중 모두가 양마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걸음을 내딛기를 믿습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1월 8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불기 2570년 병오년 신년하례 법회에서 "종단의 화합은 사부대중 개개인의 자각과 책임 있는 수행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법회는 헌향과 헌다, 헌화에 이어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통알 의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사부대중은 목탁 소리에 맞춰 삼배의 예를 올리며 병오년 새해 첫 법석의 의미를 되새겼다.

법석에 오른 성파 스님은 먼저 국태민안과 사부대중의 마음 평화를 기원한 뒤 '말의 해' 병오년을 맞는 신년법어를 내렸다.

성파 스님은 "우리는 모두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며 "말과 말을 탄 사람이 호흡이 맞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마와 둔마의 비유를 들어 "다사다난한 시기일수록 각자가 양마가 되어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면 종단은 무리가 없다"고 당부했다.

전통과 변화의 관계도 언급했다. 스님은 "묵은 대나무 뿌리에서 새 죽순이 나오고, 새 꽃은 묵은 가지에서 핀다"며 "작년이 없으면 금년이 없고, 금년이 없으면 내년도 없다"고 설해 전통 위에서의 발전을 강조했다.

수행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움'을 거듭 당부했다. 성파 스님은 "초발심이 중요하지만, 너무 서두르거나 날아다니려 해서는 안 된다"며 "얇은 얼음을 밟듯 조심조심 가면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순리를 거스르면 고장이 난다"며 자연의 이치에 맞는 수행과 삶을 강조했다.

법문을 마무리하며 성파 스님은 "우리 사부대중의 궁극적인 목적은 견성성불"이라며 "성불에는 인원수 제한이 없다. 병오년에는 사부대중 모두가 전원 견성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새해 인사말을 통해 지난 37대 집행부의 성과와 올 한 해 종단 운영 방향을 짚었다. 진우 스님은 "지난 3년여 동안 사회는 유독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큰 전환의 물결을 겪어 왔다"며 "불확실과 갈등이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도 종단은 종도와 국민의 마음을 붙드는 정신적 기둥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종정예하의 깊은 덕화와 원로 대덕 스님들의 법력, 그리고 사부대중의 흔들림 없는 정진이 한마음으로 어우러진 공덕"이라고 덧붙였다.

진우 스님은 이러한 흐름 위에 신년과제를 제시했다. 스님은 "병오년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며 "변화가 거세질수록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평정과 알아차림의 수행이 사회와 국민 정신의 중요한 의지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은 지혜와 자비의 법문으로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이끄는 데 더욱 정진하고 수행과 전법, 사회적 실천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단의 중장기 과제로 승가교육과 복지를 언급했다. 진우 스님은 "승가 교육과 복지를 종단 운영의 근간으로 삼아 전법 인재를 길러내고, 젊은 세대가 불법을 삶의 언어로 만날 수 있도록 전법의 문호를 넓혀가겠다"며 "출가 수행자 교육은 수행과 실천이 함께 여무는 방향으로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안목에서 안정된 복지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37대 집행부의 마지막 해를 맞아 "끝까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안정 속에서 화합하는 종단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미얀마 본빤 사원학교에 깨끗한 물을"

양곤 딴리 지역 본빤 사원학교
재학생 377명·스님 22명 생활
취약 식수 여건에 수인병 노출
"아이들 아프지 않도록 관심"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의 모연 캠페인으로 정수시설이 조성될 본빤 사원학교의 학생들 모습.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와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미얀마 사원학교 학생과 스님들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해 정수시설 조성 모연 캠페인을 실시한다.

정수시설이 설치될 곳은 미얀마 양곤 외곽 딴리 지역에 위치한 본빤 사원학교로 재학생 377명과 교직원 11명, 거주 스님 22명이 생활하는 곳이다.

사원학교에는 지하수 관정이 설치돼 있으나 수질이 좋지 않아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기에는 강우를 활용해 빗물을 집수한 뒤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물탱크 간이 필터를 이용해 침전 과정을 거쳐 식수와 생활용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위생 관리에 한계가 있어 학생들과 스님, 교직원들이 수인성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특히 본빤 사원학교가 위치한 딴린 지역은 양곤 시내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에서 30분 거리다. 양곤 타운쉽 내에서도 특히 빈곤층 가정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주민들 역시 설사, 피부질환 등을 상시 겪고 있다.

게다가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의 지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수중 석회질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때문에 이번에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 추진하고 있는 정수시설 조성사업은 사원학교 구성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수행 공동체가 걱정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수시설 조성에 불자들의 마음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따뜻한 관심과 정성을 당부했다. 02-725-4277

후원 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임은호 기자

사고

SNS로 '소통 강화' 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2026년 독자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SNS 활동을 강화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깊이 있는 불교 소식은 물론, 수행·문화·교육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with_hyunbul)에서는 흥미로운 불교문화를 전하는 '초심로그'와 현대불교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카드뉴스, 생생한 현장을 담은 릴스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레드(@with_hyunbul)와 페이스북(/hyunbul)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불교계 주요 뉴스를 빠르게 전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소통을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SNS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만나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올 한 해 SNS를 통해 소통을 넓히고 일상에서 불교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스레드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2026년
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오프라인 교육)
대원아카데미
불교전법 과정(신설)
명상지도사 과정
심리상담사 과정

(온라인 교육)
디지털대원아카데미
불교전법 과정(신설)
명상지도사 과정
심리상담사 과정

•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자격 취득 가능 • 접수 : 2026년 3월 10일(화)까지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BBS불교방송빌딩(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 문의 : 02-707-1072

4대 공모사업

제12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공모
접수 기간 : 2026년 1월 19일(월) ~ 2월 20일(금)

제12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 : 2026년 2월 2일(월) ~ 2월 27일(금)

제13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접수 기간 : 2026년 2월 23일(월) ~ 3월 27일(금)

제16회 원효학술상 공모
접수 기간 : 2026년 2월 23일(월) ~ 3월 20일(금)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상세 내용 홈페이지(www.kbpf.org)

조계종 “국민 마음 보듬는 종단될 것”

조계종, 병오년 시무식 개최
1월 5일, 조계사 대웅전서
제37대 집행부 마지막 해로
종무원들에 “낮은 자세” 당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은 1월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병오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열었다. 사진은 시무식 이후 단체 기념촬영 모습.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7대 집행부 마지막 해인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회로 나아가고,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종도를 섬기는 종단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1월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에서 “잘 마무리하는 것이 곧 새롭게 여는 일”이라며 이같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교역직·일반직 종무원과 스님들에게 삼배로 신년하례를 받은 뒤 준비된 신년사에 앞서 그간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백양사 주지를 지내다 2017년 느닷없이 총무원에 오게 됐고 어찌하다 총무원장 대행과 불교신문 사장, 교육원장을 거쳐 총무원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총무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회주(자승 스님) 스님과 만당 스님의 입적을 겪으며 인간적으로 큰 어려움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찰나찰나 수행자·구도자의 마음으로 살아온 힘이 (어려움을) 버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수처작주 입처개진(자신이 지금 머무는 곳의 주인이 되면, 자신이 있는 모든 곳이 참되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무원 청사 화재 복구와 관련해서도 “1층 로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라 동선에 불편이 있겠지만,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니 조금만 더 힘내 달라”고 종무원들을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신년사에서 한국불교가 사회와 호흡하기 위한 분명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스님은 “불교는 도량 안에 머무는 가르침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실천의 종교”라며 “사회적 약자, 갈등과 상처의 현장, 불안과 불신이 깊어진 공동체 속에서 불교의 자비와 지혜가 실제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과가 단발성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공공의 자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일반직 종무원들에게 ‘낮은 자세의 서비스’를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종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며 불편을 덜어 주는 행정이 곧 수행이라는 마음으로 종무에 임해 달라”며 “우리가 낮아질수록 종단은 더욱 단단해지고 신뢰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종단의 얼굴이며, 한국불교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은 유은수 종무원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교단 발전을 위해 원력을 세운 초발심을 다시 새기고, 변화 속에서 부처님 법을 받들어 사찰과 스님, 신도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종무원이 되겠다”며 “새로운 도량에서 우리 원력이 사회로 회향돼 한국불교 중흥의 밑바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염원했다.

조계종 법계위원에 법만 스님 신규 위촉

진우 스님, 1월 6일 위촉장 수여



조계종 법계품서를 관장하는 법계위원에 법만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이 새롭게 위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법만 스님에게 법계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법계위원회는 종단의 경륜 있는 어른 스님들이 모인 위상 높은 기구”라며 “마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돼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종단의 어른인데, 법만 스님이 그 역할에 적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만 스님은 “법계위원 스님들과 원만히 소통하고, 총무원장 스님을 잘 보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만 스님은 태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사미계, 198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2011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선운사 주지, 선운사 참당선원 선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김내영 기자

강화 보문사 주지에 원경 스님

적석사·옥천암·원통사 임명



조계종 직영사찰 강화 보문사 주지에 원경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30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보문사 주지(사찰관리인)에 원경 스님을 임명했다.

진우 스님은 “보문사는 종도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사찰인 만큼 잘 이끌어 진정한 직영사찰의 모범이 되어 주고, 종단과 종도 간 화합에도 역할을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원경 스님은 “과분한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총무원장 스님 잘 모시고, 전임 주지 선조 스님이 다져온 기반 위에서 종단 목적사업을 성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1월 6일 직할교구 사찰인 강화 적석사 주지에 환풍 스님, 서울 옥천암 주지에 선조 스님, 서울 원통사 주지에 석중 스님을 임명하고, 각 사찰의 특성을 살려 기도정진 도량으로 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진우 스님, 새해 첫 행보는 소외이웃과 함께

1월 1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서 신년 첫 108배

소외이웃과 떡국 공양…현안 경청
“정부·정치권에 목소리 전달” 약속


진우 스님은 108배 후 봉은사 구생원에서 활동가들과 떡국 공양을 함께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경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아침을 소외 이웃과 함께하는 108배로 시작하며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발원했다. 또 각종 현안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일 오전 8시,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새해맞이 108배 기도’를 봉행했다. 이날 108배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쿠팡 물류센터,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등의 대표 활동가들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봉은사 신도들이 함께했다.

진우 스님과 참석자들은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리며 빈곤과 차별이 없는 안전한 세상을 함께 발원했다. 108배 후에는 선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 평안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108배 후에는 경내 구생원에서 떡국 공양을 함께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진우 스님은 노동, 인권, 주거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경청하고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종단의 역할을 모색했다.

먼저 성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진우 스님은 연기적 세계관을 강조하고 “옳고 그름이나 정치적 잣대를 넘어 그들이 겪는 실질적인 괴로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부처님 정신”이라며 차별없는 자비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건물주 반대와 정부 방관 속에서 800여 명의 서울 동자동 주민들이 힘겨운 환경에 처한 상황, 쿠팡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잇따른 사망사고, 이주민 노동자 산재사망 등에 대해서도 경청했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진우 스님은 “불교의 목적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자비로 보듬어야 하는 게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언급하며 “생명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겠다”며 “수렴된 고충과 현안을 단순한 청취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전달,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정책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 후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동자동 주민이 그린 그림으로 제작된 2026년 달력을 진우 스님에게 선물하며 조계종의 연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은해사 주지 선거에 성로·덕관 스님 출마

1월 16일 육화원서 산중총회


성로 스님


덕관 스님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성로·덕관 스님이 입후보했다. 은해사 차기 주지는 1월 16일 예정된 산중총회에서 경선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1월 6일 오후 5시 은해사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중앙종회의원 성로 스님과 전 은해사 주지 덕관 스님이 출마했다. 추첨으로 기호 1번에 성로 스님, 기호 2번에 덕관 스님이 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3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후보자 자격 심사와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1월 16일 오후 1시 은해사 육화원에서 개최된다.

김내영 기자

동방불교대학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2025.12.22~2026.02.05

동방불교대학 QR code

모집학과
불교학과
- 2년 과정
- 인터넷 강의

범패학과
- 2년 과정
- 주 1회 출석 강의

자격 및 서류
자격
- 만 18세 이상
- 학력제한 없음
- 서류전형

제출 서류
- 입학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선택발급)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 교부
- 대학 홈페이지: http://dongbang.org/

원서 접수 기간
- 2025.12.22~2026.02.05

접수처 (우편,팩스,이메일)
- 팩스: 02-733-0728
- 이메일: dongbang2030@naver.com

입학문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02-745-2030
- 010-3224-3454

합격자 발표
- 2026.02.26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우 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1층 TEL: 02-745-2030 FAX: 02-733-0728

진보·화합·복지…종단·단체들, 신년하례서 '다짐'

진각종, 1월 2일 신년하례불사
능원 정사 "감동 교화 실현을"

태고종, 1월 7일 신년하례법회
상진 스님 "화합으로 종단 중흥"

전국비구니회, 1월 5일 신년하례
'비구니회원장' 본격 운영 알려

신중일 · 임은호 기자



태고종은 1월 7일 '불기 2570년 병오년 신년하례 및 종단 시무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1월 5일 '불기 2570년 전국비구니회 신년하례식'을 봉행했다.

진각종, 태고종을 비롯한 종단과 단체들이 신년하례를 열고 병오년 새해에도 부단한 정진을 다짐했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1월 2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다목적홀에서 '진기 80(2026)년 병오년 신년하례불사'를 봉행했다.

총인 덕일 대종사는 신년법어를 통해 "화합이란 온 우주와 나의 합일이자 서로의 다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원융무애의 세상"이라며 "혁신은 화합을 근본 바탕으로 하며, 참회를 통해서 바르게 완성된다"고 설했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신년사에서 "32대 집행부가 내건 인재양성, 재원확보, 시스템 구축으로 감동교화를 실현하자는 슬로건에 맞게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한 해가 되도록 원력을 모아 진각대도의 길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7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웅보전에서 '불기 2570(2026)년 병오년 신년하례 및 종단 시무식'을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에 참석한 사부대중 100여 명은 통알 삼배 의식을 통해 부처님과 원로 스님에게 새해 인사를 올렸다. 이어 원로의장 호명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종단은 광화문 국제수계대법회와 영산재 시연을 통해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으며 중국불교계와 교류, 종조 태고 보우 국사 위상 재정립 사업 등을 통해 종단의 뿌리와 미래를 동시에 다졌다"면서 "이는 한국불교 장자 종단으로서 태고종의 위상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자긍심을 바르게 세우려는 종도 모두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격려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불교 의식을 전승해 온 태고종은 한국불교를 지탱해 온 뿌리였다. 의식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이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제수계대법회와 영산재는 태고종이 한국불교의 적통과 뿌리라는 것을 온 세상에 새롭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집행부인 호명 스님께서 잘 안정시켜 놓은 종단을 이제 진보해 나갈 일만 남았다"면서 "총무원은 종도 여러분과 함께 종단 중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년하례에 참석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울 당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께서 중심을 잘 잡아 주셨고 이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로 가게 됐다"면서 "저도 올해 큰 원력을 하나 세웠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삼았듯이 경기도를 대도약시키는 역할을 맡겠다는 원력이다. 종단 대덕 스님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그 원력이 이뤄질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고 밝혔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1월 5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에서 '불기 2570년 전국비구니회 신년하례식'을 봉행했다.

원로의장 일법 스님은 신년 인사에서 "해는 늘 뜨고 지지만 우리는 새해를 맞으며 각자 저마다의 서원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병오년 한 해 동안 세운 뜻들이 장애 없이 원만하게 성취되길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비구니회장 광용 스님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섰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소임에 매진해 온 스님들 한 명 한 명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자 대표"라고 인사했다.

이날 전국비구니회는 회원 스님들의 노후 안정과 장례 서비스를 책임지는 '전국비구니회원장'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조직을 확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국비구니회원장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광용 스님, 장례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은 혜욱 스님, 전화·방문상담서비스위원장은 정관 스님, 기획·교육위원장은 지인 스님이 위촉됐다.

이날 신년하례식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활동 중인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비구니회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가 펴낸 책 〈역사 속 한국비구니〉가 수상한 불교출판문화대상 트로피를 부처님전에 봉정하기도 했다.

종교편향특위, '종교 중립 위반' 모니터링·후속 조치 강화

12월 30일 제6차 회의서
현황 점검 · 활동 방향 논의
특위 새 위원장 보화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보화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가 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종교편향과 종교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언적 대응을 넘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결의했다.

종교편향특위는 12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그간의 종교편향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천주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공공시설 사유화 및 종교편향적 행위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에 따르면 조계종은 종교평화위원회(종평위) 차원의 입장문 발표와 홍선기 종평위원의 기고 등을 통해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현재 세계청년대회 지원과 관련해 발의된 3건의 특별법안은 모두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관련해서도 김 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종교편향특위와 종평위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됐다. 특히 종평위는 9월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고, 11월 19일 "독립기념관 시설을 절차 없이 무상 제공하고, 관장이 종교의식에 직접 참여한 것은 공공기관장의 종교중립 의무를 위반한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보훈부



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권고했고, 실제 12월 9일 실시됐다.

이에 종교편향특위 스님들은 종교편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포교사단과 국제포교사회, 공무원불자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현장 상황을 폭넓게 공유하고, 종교편향 사안 발생 시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선광 스님의 동화사 주지 선출로 새롭게 임명된 위원장 보화 스님은 "종교편향 행위를 사후에 인지해 대응하면 조치가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철회·사과·사퇴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탄보 스님도 선언적 대응에서 그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종교편향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김 관장은 예배 참여를 지속하는 등 공공기관장으로서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명분이 있는 만큼, 종단 차원에서 방향성을 분명히 세우고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참여하는 1인 시위나 삼보일배 등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경 스님도 "종교편향 논란이 불거진 초기에는 (불교계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 내부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원 스님은 "입장문과 함께 논설 기고나 보도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종단 내부와 사회 전반에 경각심과 긴장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종단과 교구본사, 지역 신행단체가 협력한 모니터링 구조를 갖추는 것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사회부장 진성 스님도 "다종교 사회이자 법치국가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국가적 특혜는 분명한 문제"라며 "각 사찰이 이를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인식하고, 종단과 사찰, 불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내영 기자

성우문도회 정운 스님 승려복지기금 3200만원



비구니 수좌로 평생을 수행 정진했던 성우 스님의 상좌인 정운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은사 스님의 유훈을 잇고자 승려복지기금을 쾌척했다.

성우문도회장 정운 스님은 1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승려복지기금 32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15년 전 입적한 성우 스님이 남긴 유산으로, 그동안 문중에서 보관해 오다 승려복지기금으로 사용하자는 뜻이 모여 전달하게 됐다. 선방 수좌 스님들과 도움이 절실한 스님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6학년도 신(편)입생(학점은행제)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료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 제출서류 | ◈수료과정 :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일정 | 2026년 1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6년 3월 첫째주 3월 3일 화요일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영산재보존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3. 출가승려(법계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동방대학 2년졸업후 옥천범음대학 편입 하여 4학년 졸업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을 부여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회 장 조현성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김향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불교계 “신불산 케이블카 ‘재검토’ 환영”

조계종 환경위 1월 6일 논평 발표
“국민생명 · 공원 보전 우선 가치”
통도사 “세계유산 보호 연대”
불교환경연대 “미련 없이 폐기”

임은호 기자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신불산 케이블카 예정지에서 현장점검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케이블카 반대 의지를 밝혔다.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당국이 부동의 결정을 낸 가운데, 해당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온 불교계에서 환영의 뜻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는 “이번 신불산의 재검토 결정은 환경당국이 그동안 흔들렸던 환경 보전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사업 폐기와 함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보호지역을 파괴하는 모든 개발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진각 스님, 이하 환경위)는 1월 6일 ‘37년 논란의 종지부,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전 책무를 무시한 신불산 케이블카 재검토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환경위는 이번 결정에서 환경당국이 명확히 제시한 ‘안전’, ‘경관’, ‘생태계 훼손’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불가 사유에 주목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자연공원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불산은 급경사 암반 지형과 고산 생태계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대규모 케이블카 시설과 상·하부 정류장, 각종 부대시설 설치 시 낙석·붕괴 등 심각한 안전 위험과 함께 회복 불가능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환경위는 “이번 결정은 특히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훼손과 안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환경당국이 안전성과 환경성을 중대한 판단 사유로 명시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관 조망을 명분으로 케이블카와 대형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할 자연공원 관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재검토 결정은 ‘경관을 본다는 명목으로 경관을 파괴하는 개발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분명한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 환경위는 “전국 자연공원과 보호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및 각종 난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례가 향후 자연공원 정책에서 국민안전과 생태 보전이 흔들릴 수 없는 최우선 기준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 영축환경위원회도 1월 7일 입장문을 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울주군이 추진해 온 신불산 군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통보한 것은, 1989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37여 년간 이어져 온 논란에 중요한 제동을 건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단순한 개발 반대를 넘어 통도사의 수행환경과 이를 둘러싼 자연환경을 하나의 문화유산 체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신불산이 영축산과 함께 통도사 산지승원의 핵심 축을 이루는 공간이며, 이 일대가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의해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됐음을 강조했다.

통도사는 또한 “세계유산 통도사가 지닌 1400년 역사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향후에도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통도사 산군과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연대와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해 왔던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도 논평을 내고 ‘재검토’ 결정을 환영했다. 불교환경연대는 1월 6일 발표한 논평에서 “울주군과 울산시는 뭇생명의 안식처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프라미스·스리랑카 SLCDF 협약…지역 역량 강화

12월 24일, 지속가능 발전 위해
긴급 인도적 지원 ·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공동 추진

국제협력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가 스리랑카 현지 NGO ‘스리랑카 개발촉진센터(SLCDF·Sri Lanka Centre for Development Facilitation)’와 업무협약을 맺고 스리랑카 사회 취약 지역의 회복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더프라미스와 SLCDF는 12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경험과 국제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 재난 대응과 공동체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단기적 구호를 넘어 지역사회가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반 재난위험감소 및 관리(DRRM)와 기후 적응 전략을 통한 재난 대응 강화 △지역 조직 역량 강화·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중심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DRR(disaster risk reduction·재난 위험 경감)·지속 가능한 농업·기후 회복력 등에 대한 지식 교류 및 학습 촉진 △정부 및 지방 당국 정책 협력 △커뮤니티 개발 등에서 협력한다.

양 기관은 특히 재난 대응 훈련과 위험지도 작성, 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지속가능한 생계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재난 이후 복구를 넘어 사전 예방과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모든 협력 분야에서 성평등과 장애포용, 사회통합을 반영키로 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LCDF는 긴급 재난 발생 시 이들이 보유한 광범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 맞춤형 구호물자와 초기 복구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키로 했다. 더프라미스는 국제 인도적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물적 지원과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또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지역 주민과 지역기반조직의 자립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더프라미스는 최근 스리랑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왔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사이클론 ‘디트와’가 스라랑카를 덮쳐 국가적 위기를 맞았을 때 침수피해로 고립됐던 모투나 지역 등의 피해 가구를 직접 찾아 안전한 식수 공급 시설 구축, 위생 교육, 기초 생계 회복을 위한 현금·현물 지원 사업 등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했다. 또 지난 연말에는 2004년 지진해일 피해 후 조계종의 지원으로 세워진 조계종복지타운 보육원을 찾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재난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프라미스는 SLCDF와의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스리랑카 내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금 및 재원 조달에도 적극 나선다. 사업 제안서 작성과 성과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사례를 기반으로 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시민 참여형 모금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100-036-088002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02-735-3119

임은호 기자

대원아카데미,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역행지도사’ 과정 신규 개설
향후 ‘불교전법사’ 자격 연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 이하 진흥원)이 부설 평생교육시설인 ‘대원아카데미’와 온라인 교육 과정인 ‘디지털대원아카데미’의 2026학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법 역량 강화’를 올해 슬로건으로 내세운 대원아카데미를 이를 위해 ‘역행지도사(불교 전법) 과정’을 신설했으며 향후 개설되는 불교전법사 자격증과 연계돼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행의 대중화를 위한 명상지도사 과정과 불교 전문 상담사 양성을 위한 심리상담사 과정도 운영된다. 3개 과정 모두 2년 4학기제로 운영된다.

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이들을 위한 출석 기반의 대원아카데미와 시·공간 제약 없이 정진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대원아카데미가 함께 운영된다.

또한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만 골라 듣는 과목별 수강제도를 운영해 학습의 자율성을 극대화했다. 과정 등록자 1인당 동반자 1명에 한해 1과목을 청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수강생에게는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이 부여된다. 더불어 수강생들의 학업 의욕을 독려하기 위한 풍성한 장학금 제도와 불교계 종사자 수강료 할인 혜택 등도 마련돼 있다.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 원서 접수와 등록은 오는 3월 10일까지이다. 02-707-1072

신중일 기자

홍대선원, ‘行턴 수행 인턴십’ 5기 모집

2월 1일~3월 31일 2개월
만 22세~39세 신청 가능

JustBe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이 수행과 삶, 일을 하나로 잇는 청년 대상 프로그램 ‘行턴: 수행 인턴십’ 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JustBe 홍대선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턴 5기는 출가 체험과 실무 인턴 과정을 결합한 2개월간의 수행 프로그램이다.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 즉, 사는 모든 순간이 수행임을 모토로 수행자로 살아 보고 인턴처럼 배우며 나를 그리고 도반을 만나는 ‘리얼 수행 인턴십’이다.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 2주간의 출가체험에서는 예불과 참선, 불교공부, 운력, 대중생활을 통해 수행자의 기본 일과를 경험한다. 이어지는 6주간의 수행 및 실무 인턴 과정에서는 수행을 바탕으로 한 실무 경험이 진행된다. 기획과 운영, 행사, 홍보 업무에 참여하며 SNS와 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실습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희망자에 한해 2주간의 ‘JustBe 히말라야 트립’도 마련됐다. 히말라야 지역에서 트레킹과 운력, 명상을 통해 자연 속 수행을 경험한다.

행턴 5기 모집 대상은 만 22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다. 도반과 함께 수행하는 삶이 궁금한 이, 졸업이나 취업 이직을 앞두고 멈춤이 필요한 이, JsutBe와 커리어를 함께 그려 가고 싶은 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구글폼에서 가능하며 마감은 1월 25일 오후 6시까지다. 참가비 50만원. 010-5906-2423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2026년 4대 공모사업

원효학술상 등 공모 요강 발표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 이하 진흥원)이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2026년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제16회 원효학술상 공모는 학자부문과 석·박사 과정 학생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로 하면 된다. 학자 부문 대상에는 2000만원, 특별상에는 1000만원, 학생 부문 선정 논저에는 200~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제12기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공모는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대학생·대학원생과 초·중·고교 불교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대학원생에게는 30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지며 초등 불교동아리 50만원, 중고등 불교동아리와 대학·대학원 불교동아리에는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선정 불교동아리 지도교수(교사)에게도 5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이메일(kbpf2606@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제12기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불교 관련 소모임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 기관·단체에게는 200~500만원의 지원금이 수여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며 이메일(kbpf2606@daum.net)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13기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는 불교 학술 부문과 불교 콘텐츠 부문으로 나눠 이뤄지며 접수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다. 접수는 이메일(kbpf2606@daum.net)로 가능하다. 불교 학술 부문 선정 저서에는 500~1000만원, 번역서에는 300~800만원이 지원되며 불교 콘텐츠 부문 선정 프로그램에는 500~8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신중일 기자

서울 충정사 ‘남산-숨, 쉼’ 선명상 클래스

1월 10~25일, 주말 8차례 진행
몸-마음 돌보는 선명상 체험

서울 남산 충정사(주지 덕운 스님)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을 위한 선명상 클래스 ‘남산-숨, 쉼’을 개최한다.

‘남산-숨, 쉼’은 한 해의 시작점에서 잠시 멈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선명상과 마음돌봄 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주말 동안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싱잉볼 명상, 자기연민과 회복탄력성 명상, 감각 기반 명상, 마음챙김 소통 명상, 식사 명상, 그림책 명상의 8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진행은 동국대 선학과 명상수행 코칭 전공자들로 구성된 명상 안내자들이 맡는다.

참가자들은 호흡과 감각, 소리와 이야기, 먹는 행위와 관계 맺기 등 일상적인 경험을 명상의 소재로 삼아 자신을 돌보고 삶의 방향을 차분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프로그램은 충정사 선명상실에서 진행되며, 회차별 참가비와 모집 인원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다르다.

주지 덕운 스님은 “새해맞이 선명상 클래스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생명의 소중함과 자기 삶을 돌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불교 명상이 수행자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삶의 지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02-2279-5538

여수령 기자



동국대 WISE캠 대강당, ‘와이즈홀’로 재탄생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류완하)는 1월 6일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지하 1층 와이즈홀(구 대강당)에서 ‘와이즈홀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은 2009년 완공된 이래로 대학의 배움과 교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대학 환경 속에서 공간의 브랜드화와 정체성 부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맞춰 대강당 명칭을 공모했다. 동국대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동국대 WISE캠퍼스와 연결성을 강조하고, 대학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대불련 64차 중앙회장에 선민지 씨

12월 27일, 정기총회서 결정
“말보다 행동, 권위보다 봉사”


임유정 선관위원장(사진 오른쪽)은 선민지 중앙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64차 중앙회장에 선민지 한국농수산대 지회장이 선출됐다.

대불련 64년차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유정)는 12월 27일 서울 동국대 혜화관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정했다.

선민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유주연 전 회장이 다져 놓은 연대의 마음을 이어받아 ‘깊어지는 우리’에서 ‘평생 도반’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환하게 밝히겠다”면서 “따뜻하고 실천적인 대불련을 법우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말보다 행동으로, 권위보다 봉사로 법우들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은호 기자

“승보종찰 송광사 참배, 한 번에”

서울–송광사 직통 고속버스 개통
1월 2일 송광사 일주문서 개통식
강남 센트럴시티~송광사 직통
하루 2회 운행…무환승 참배 가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총림 송광사와 서울을 잇는 직통 고속버스 노선이 개통돼 신행 및 방문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순천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1월 2일 사찰 산문 앞에서 주지 무자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김문수 국회의원, 정영균 전남도의원, 오행숙 순천시의원, 김미란 송광면장,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직통 고속버스 노선 개통식을 거행하고 자축했다.

이번에 개통된 노선은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출발해 송광사 산문, 즉 경내 일주문 앞까지 바로 운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조계총림 송광사는 산문(일주문) 앞에서 서울~송광사 시외버스 노선 개통식을 거행했다.

그동안 송광사를 찾기 위해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농어촌버스를 서너 차례 갈아타야 했고 이동 시간도 반나절 이상 소요됐지만, 직통 노선 개통으로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됐다.

해당 노선은 금호고속과 광우고속이 공동 운행하며, 서울행은 오전 9시 30분과 오후 4시, 송광사행은 오전 8시 40분과 오후 3시 10분 등 하루 두 차례씩 매일 운행된다. 특히 사찰 경내 산문까지 버스가 직접 진입함으로써 고령 신도와 단체 참배객,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개통식 당일 오전 9시 30분, 서울행 첫 차량이 산문을 경유하자 스님들과 참석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새 노선의 출발을 축하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주지 무자 스님은 “많은 관계기관과 지역 인사들이 마음을 모아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며 “서울과 송광사를 오가는 길이 훨씬 편리해진 만큼, 안전운행을 기원하고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송광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승하차 시설과 주변 환경을 더욱 보강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광사 사부대중과 신도들은 버스의 무사안녕과 운행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며 개통식을 회향했다.

아들의 못다 이룬 꿈, 로터스관 건립 불사로 새기다

김종애 동국대 정각원 행정과장
子엄성호 씨 부의금 1억원 기부
“아들 숨결 선센터 머물길 바래”
동국대, 로터스관에 영구 보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을 기리기 위해 동국대 로터스관 건립불사에 참여한 애틋한 모정이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지난해 12월 15일, 본교 김정애 정각원 행정팀 과장이 교내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건립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40년 근속 직원의 학교 사랑을 넘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을 기리는 어머니의 애틋한 모정(母情)이 담겨 있어 교내 안팎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 과장은 아들 故 엄성호 씨의 1주기인 1월 27일을 앞두고 장례 이후 모인 부의금을 학교에 전달했다. 엄 씨는 동국대 WISE캠퍼스 스포츠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캠퍼스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공군 항공구조사(SART)에 지원했다. 그는 1년여의 힘든 훈련 과정을 우수하게 마치고 공군 항공구조사(SART) 대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청춘의 꿈을 펼치던 자랑스런 ‘동국 가족’이었다.



지난해 12월 15일, 동국대 김정애 정각원 행정팀 과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교내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건립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김 과장이 기부처로 로터스관, 그중에서도 ‘선(禪)센터’를 택한 이유는 남다르다. 명상과 수행, 마음 치유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선센터가 아들의 못다 한 꿈과 기억을 가장 온전히 보듬어 줄 수 있는 공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동국대는 나에게 40년의 일터였지만, 아들에게는 미래를 꿈꾸던 배움의 터전이었다”며 “성실하고 착했던 아들의 이름과 숨결이 선센터에 머물며 학업과 일상에 지친 후배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

이번 결심에는 김 과장 가족과 오랜 인연을 맺어 온 학교법인 동국대전 이사장 법산 스님의 조언도 큰 힘이 됐다. 엄 씨가 어린 시절 ‘스님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던 법산 스님은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아들의 뜻을 가장 값지게 기리는 방법으로 ‘마음의 인연을 학교에 남기는 공덕’을 제안했다. 가족들은 이에 깊이 공감해 뜻을 모았다.

윤재웅 총장은 “이번 기부금은 단순한 발전기금을 넘어 한 어머니의 사랑과 한 청년의 꿈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생명과도 같은 돈”이라며 “김 과장과 엄 씨의 뜻을 받들어 로터스관 선센터가 구성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불교의 자비보시행을 실천하는 숭고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동국대는 엄 씨의 뜻을 기려 로터스관 내 선센터 공간에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록하고 보존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베트남, 패엽경 기술 보존 나섰다

19세기 중반 캄보디아서 전해져
계승자 육성·자료 아카이빙 실시

가장 오래된 불경 제책 방식으로 알려진 패엽경. 말린 야자잎에 불경을 쓰는 이 방식은 현재도 상좌부 불교권에서 전승돼 오고 있다. 베트남 상좌부 불교 공동체에서도 패엽경 제작기술이 전승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화제다. 지난 1월 2일 베트남의 ‘보이스 오브 베트남’은 현재 거의 유일한 베트남 패엽경 제작자인 차우 티 스님의 이야기를 전했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한 베트남 남서부의 안장성. 이곳은 캄보디아계 베트남인인 크메르족이 다수 거주함에 따라 대승불교 성행하는 베트남 가운데서도 자체적인 상좌부 불교 공동체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현재 안장성에서 야자잎에 글자를 새겨 패엽경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인물은 소아이소 사원의 주지 차우 티 스님이다. 스님은 “야자잎에 글자를 새기는 것은 의지력, 인내심 그리고 열정을 요구하는 특별한 예술적 창작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 권의 패엽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자는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팔리어 문법과 표기법에 대한 이해와 각 경전의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차우 티 스님은 24세 때 패엽경 제작법을 배우기 시작해 세납 85세가 넘는 지금까지 전통을 보존한다는 사명감으로 패엽경을 제작하고 있다.

베트남 크메르 문화 연구자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패엽경 제작기술은 19세기 중반경 캄보디아에서 전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제작된 패엽경들은 대부분 고대 크메르 문자로 쓰인 팔리어 불경이다. 불경 외에도 패엽경에는 민속, 달력, 의학 등 다양한 시대에 걸친 기록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제작기술의 보존과 전승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차우 티 스님은 “기술을 배우려는 열정과 끈기를 가진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결정적으로 재료 수급 또한 큰 문제다. 야자잎을 비롯해 중요한 제작도구는 모두 캄보디아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고충을 전했다.

최근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수민족종교부는 안장성의 패엽경 제작 기술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지난 2022년 안장성 행정부는 2030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보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승인했다. 먼저 4년간 패엽경의 목록 작성 및 분류, 손상된 경전 보수 및 보존처리, 디지털 아카이빙을 완료한 후 장기적으로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 ‘안장성 크메르족의 패엽경 문자 지식 및 기술’을 등재하기 위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일환으로 최근 차우 티 스님이 주석하는 소아이소 사원에는 정부와 현지 불교계의 지원으로 패엽경 제작 강좌가 개설됐다. 스님은 “패엽경은 단순한 불경이 아닌 크메르족과 베트남 상좌부 불교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오롯이 담겨있다. 그렇기에 각 경전은 하나의 작은 도서관과 같다”며 “패엽경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패엽경을 제작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는 차우 티 스님. 사진 출처=보이스 오브 베트남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화계사

사부대중 일동

화계사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 불교입문(3개월) • 천수경(3개월) • 선·명상 입문(10회)

불교대학, 대학원, 경전반 3월 14일(토) 입학식
문의) 02-997-6469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 02)997-6469 Fax 02)990-1885 www.hwagyes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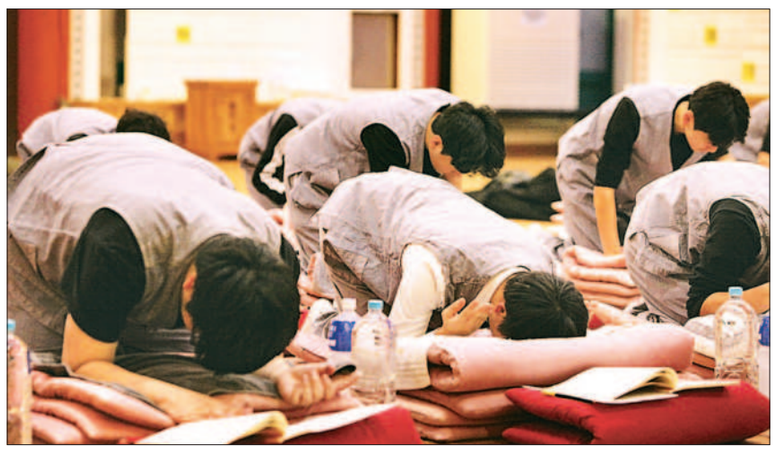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주지 석산 성행
기획 명원 포교사 수인
총무 명법 노전 정타
재무 명종 부전 정완, 강륜
포교 명우 신도회장 자연
사부대중 일동
부설
의왕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녹향원
청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청계동)
전화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끝까지 해냈다” 해동고 학생들, 3000배 정진

12월 31일~1월 1일, ‘제16회 삼천배 정진법회’

24명 동참해 삶의 방향 탐색
천 배 넘어 고비 이어졌지만
인내심·끈기 배운 값진 회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통도사 설법전에서 해동고등학교 학생들이 좌복 위에 몸을 낮추고 삼천배 정진에 임하고 있다. 학생들은 한 배 한 배에 마음을 모으며 새해를 맞았다.

해동고 학생들이 통도사 설법전에서 3000배 정진으로 한 해의 끝과 시작을 맞았다.

학교법인 영축학원 부산 해동고(이사장 현덕 스님·교장 오상현)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틀간 통도사 설법전에서 ‘제16회 진로진학을 위한 성도절 삼천배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현장에는 24명의 학생이 참석해 절을 이어 가며, 진로와 삶의 방향을 스스로에게 물었다. 안정수 교법사가 절수행을 지도했고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문재준 교사와 조준석 해동고 행정실장이 함께했다.

설법전에는 좌복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였다. 학생들은 합장하며 ‘지심귀명례’ 염송에 따라 몸을 낮췄다. 정진이 이어지자 학생들은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목에 건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절이 반복되자 학생들은 저려오는 다리를 털며 제자리걸음으로 근육을 풀었다. 700배를 넘긴 뒤 물 한 잔으로 숨을 고른 학생들은 다시 좌복 앞에 섰다. 영하의 강추위가 예고된 날이었지만 설법전 안은 수행의 열기로 뜨거웠다.

1700배에 이르자 통증은 심해졌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기록도 카카오톡 대화방에 남았다. 2200배를 넘어서면서는 “공부할 때는 짜증만 났는데, 지금은 오만 감정을 느낀다”, “2200배가 공부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다” 등 밀려오는 여러 감정을 표현했다.

2500배에 이르자 통증은 극에 달했다. 다리가 견디기 힘들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2700배를 지나면서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눈을 감았다 뜨면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표현도 전해졌다.

드디어 3000배가 모두 끝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힘들었지만 끝까지 해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차분해졌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감격이 이어졌다.

3000배를 마친 뒤 학생들은 회향 소감에서도 각자의 다짐을 전했다. 한 학생은 “삼천배 회향으로 인내심과 끈기를 기르게 됐다”며 “일상에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일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진을 마친 뒤 학생들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자리를 함께했다. 현덕 스님은 학생들에게 염주를 끼워주며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번 삼천배 정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밑바탕이 되는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동고는 교내 해동법당을 중심으로 매일 108배 정진을 하는 한편, 성도절과 새해에는 3000배 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6회를 맞은 3000배 수행을 위해 학생들은 45일간 특별정진하며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매일 자신의 상태를 기록해 왔다.

사회복지법인 안국, 취약계층 마음돌봄 실천

9개 기관서 총 267명 동참
범어사 ‘비오마인드’ 연계해
사찰음식 체험·순례 등 경험


참가자들이 범어사 ‘비오마인드’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음식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사회복지법인 안국(대표이사 수불 스님)이 범어사 ‘비오마인드(BEOmind)’ 프로그램과 연계한 마음돌봄 활동을 후원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돌봄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사업은 불교 수행과 문화 체험을 기반으로 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서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연산종합사회복지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부산지역 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해 장애인, 정신장애인, 독거 어르신과 보호자 등 총 267명이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사업은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됐다.

마음돌봄 나눔은 사회복지법인 안국이 범어사의 대표 마음치유 프로그램인 비오마인드를 복지 현장과 연결해 기획·후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안국은 총 2000만원을 후원했으며, 불교 수행의 자비 정신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비오마인드는 ‘범어사에서 마음을 경험하다(Beomeosa Experience of Mindfulness)’라는 의미를 담은 범어사의 마음치유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불교 수행 전통과 사찰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쉼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사찰음식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비오마인드 푸드’, 범어사 순례길을 걸으며 호흡과 마음을 가다듬는 ‘비오마인드 워크’, 연등 만들기를 통해 마음의 빛을 되새기는 ‘비오마인드 라이트’ 등 세 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비오마인드 프로그램 이후에는 참여 기관 연계 프로그램으로 싱잉볼 명상, 체육활동, 문화 관람 등 참여자 특성에 맞춘 후속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정서 안정과 회복 효과를 확장했다.

대표이사 수불 스님은 “비오마인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이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경험했다는 점이 뜻깊다”며 “앞으로도 범어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돌봄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축문화대상 시상식…김성규 등 수상

12월 30일 통도사 설법전서
월하 대종사 22주기 추모도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제22주기 추모다례재와 제13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이 12월 30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렸다.〈사진〉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현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성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여러 인연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같은 불사들은 잘 가꾸고 정리해야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잘 정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13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는 학술문화 부문에 김성규 영남대 명예교수, 포교원력 부문에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 봉사실천 부문에 김연호 제천 진주동물병원장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2000만원이 전달됐다.

현문 스님은 “그간 1000만원이던 상금이 올해 2000만원으로 증액됐다”며 “재단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사들을 비롯한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협조해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 해동고 2학년 김성겸 학생과 보광고 3학년 고다영 학생에게 영축문화재단 장학증서도 수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동용궁사, 연말 맞아 ‘자비의 쌀’ 전달

개금종합복지관에 1500kg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말사 해동용궁사(주지 덕림 스님)가 연말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사진〉

해동용궁사는 12월 29일 경내에서 ‘자비의 쌀 나누기’ 전달식을 열고, 백미 1500kg을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과 식사배달 사업에 사용된다.

해동용궁사 주지 덕림 스님을 대신해 원주 연경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눔과 자비의 실천에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계속 이어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량사, 제1회 어린이·청소년 수계법회

17명 동참…“한국불교 미래”



부산 청량사(주지 운암 스님)가 12월 28일 경내 극락보전에서 ‘제1회 어린이 청소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17명이 동참해 불자로서의 첫 서원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지 운암 스님은 “오늘 계를 받은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 불교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청량사는 이번 수계법회를 계기로 미래 세대를 위한 불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여름방학에 열리는 미국 동부 백림사 영어 불교 캠프 참여자에게 사찰 차원의 경비 일부를 지원해 인재 양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오 어 사
주 지 성주
사부대중 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1
전화 054)292-2083 팩스 054)291-4190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유튜브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우학스님이 전하는
생활법문, 인생강좌, 선어록 강의 등을
매일 새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심도 있는
불교 공부가 가능하며,
57만명의 유튜브불교대학
신도님들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기도성취大도량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 대구큰절 053-474-8228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회 주 지산
주 지 징암
사부대중 일동
관운사 다음카페 : cafe.daum.net/guanunsa
YouTube “지금으로 가는 징검다리TV”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전화 054)931-7777 팩스 054)931-3000
관운사 가야 복지센터 Tel (054)933-0808

“보살행으로 병오년 새해 열길”

전국 주요 사찰들 새해 타종식 개최

유재상 충청지사장 ·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덕숭총림 수덕사는 1월 1일 타종식을 열고 병오년 새해를 맞이했다. 사진은 방장 우송 대종사의 타종 모습.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는 1월 1일 ‘제야의 종 타종식’을 봉행하고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했다.


세종 광제사는 1월 1일 화합과 평화를 발원하는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병오년 새해를 맞았다.

전국 주요 사찰들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타종 행사를 열고 참된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1월 1일 경내 범종각 일원에서 새해 타종식을 열고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이했다.

타종식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와 선덕 지운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주지 도신 스님 등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재구 예산군수, 장순관 예산군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송 스님은 신년법어에서 “새 하늘과 새 태양이 떠오른 오늘은 각자가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서는 날”이라며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안아 주는 보살행이 병오년을 여는 길”이라고 설했다.

주지 도신 스님은 “오늘의 타종이 시련을 뒤로하고 희망과 평안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는 1월 1일 자정, 제야의 종 타종으로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았다. 12월 31일 오후 7시 〈금강경〉 독송으로 시작된 제야 행사는 주지 원경 스님과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 타종식까지 이어졌다.

주지 원경 스님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馬]은 환경에 민감하고 주인에게 충실한 동물이지만, 사람의 말[言]은 희망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한다”며 “경청과 침묵을 아는 태도가 새해를 살아가는 중요한 덕목이며, ‘말의 홍수’ 시대일수록 신뢰와 책임이 담긴 말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태정 스님(아산 인취사 주지)의 명고로 시작된 타종식은 주지 원경 스님과 최원철 공주시장의 타종을 시작으로 동참 대중이 함께 종을 울리며 사회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는 1월 1일 ‘제야의 종 타종식’을 봉행하고 지역민과 함께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이했다. 이날 타종식은 불자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수행 정신이 결합된 ‘복합 문화 법석’으로 꾸며졌다.

행사는 12월 31일 오후 9시 대웅전과 설법전에서 철야정진 기도로 시작됐다. 이어진 문화공연에 앞서 주지 선광 스님은 매서운 추위에도 타종행사를 찾아 준 신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2026년에도 새로운 희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모아 가자.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타종식에서는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33번의 범종을 울렸다. 대중은 컵촛불로 ‘소원 이루어지다’ 문구를 형상화하며 저마다 마음속 등불을 밝혔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덕조 스님)가 을사년 마지막 밤을 지혜의 빛으로 밝히고 서원의 종소리로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했다.

은해사는 1월 1일 경내에서 ‘병오년 은해사 희망의 타종행사’를 봉행했다. 세밑 한파도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덕조 스님은 “모든 원망과 불편한 것들은 이곳 은해사 도량에 다 버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종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1월 1일 해돋이 시간에 맞춰 광제사 대웅전과 앞마당에서 신년 해맞이 법회를 봉행하고 소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국태민안과 세계 평화를 발원했다.

타종식에 앞서 경내 삼천불전에서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가족과 이웃이 모두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작은 음악회와 108번뇌 참회기도가 진행됐다. 자정을 알리는 타종은 주지 덕조 스님과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첫 타를 치며 시작됐으며 타종 후에는 전 대중이 촛불을 들고 탑돌이를 진행하며 새해 평안을 기원했다.

“사찰서 아이들 뛰놀도록 하는 게 ‘포교’”

지역 불교人 광주 동원사 주지 지장 스님

첫째 주 일요일 ‘꿀데이법회’
가족들 함께하는 법회 열어
배움학교 등 어린이 포교 정진


광주에서 어린이 포교에 정진하고 있는 동원사 주지 지장 스님.

불교 포교 기반이 취약한 지역으로 꼽히는 광주에서 매월 어린이 법회를 꾸준히 이어 가고, 매년 여름이면 대규모 어린이 불교학교를 개최하는 사찰이 있다. 광주 동구에 위치한 동원사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꿀데이법회’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또 여름방학 기간에는 7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해 지역 포교 현장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장 스님은 과거 불교 어린이 단체인 (사)동련 광주지부장을 맡아 어린이 포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현장에서 몸소 체득했다. 당시 스님은 어린이 법회와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불교를 ‘배워야 할 대상’이 아닌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써 왔다.

“어린이 포교는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이기에 더욱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불교를 설명하기보다, 불교가 아이들 삶 가까이에 있다는 경험을 먼저 전해 주고 싶습니다.”

현재 지장 스님은 (사)자비신행회와 함께 청소년 프로젝트 ‘나르샤’를 운영하며 매주 토요일 배움학교를 통해 아이들과 일상을 나누고 있다. 배움학교에서는 학습 지도와 체험 활동, 놀이 프로그램은 물론 점심 공양 나눔을 이어 가며,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스님은 “아이들과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포교이자 수행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나눔을 통한 실천 포교 역시 지장 스님의 포교 행보에서 중요한 축을 이룬다. 2024년에는 동구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꼬까신 나눔’을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책가방 나눔을 통해 새 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응원했다.

특히 동원사의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는 지역 포교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놀이와 명상, 체험 활동, 불교 문화를 접목한 프로그램에 매년 6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해, 불교에 대한 선입견을 넘어 즐겁고 따뜻한 경험을 쌓아 가고 있다.

“아이들이 절에 와서 웃고 뛰노는 모습 자체가 이미 포교입니다. 그 기억이 훗날 힘든 순간에 떠올릴 수 있는 따뜻한 장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스님은 거창한 목표를 앞세우기보다 지금까지 이어 온 걸음을 조용히 지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꿀데이법회와 여름불교학교, 배움학교와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불교가 교리가 아닌 삶의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는 서원이다.

“아이들은 답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을 더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너도 괜찮다’는 한마디가 아이들 삶을 지켜 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큰스님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의 인생 한 페이지에 따뜻한 장면 하나로 남는 수행자로 살고 싶습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주 불교계 신년하례 “화합 매진”

1월 6일 공주노인복지관서



공주시사암연합회(회장 천산 스님)와 공주시불자연합회(회장 박영구)는 1월 6일 공주노인복지관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원경 스님(마곡사 주지)과 사암연합회장 천산 스님(갑사 주지), 수석부회장 성관 스님(신원사 주지), 부회장 관우 스님(청룡사 주지) 등이 참석했다.

원경 스님은 “작은 실천의 축적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된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6교구 동림회, ‘계룡산과 불교’ 첫 특강

1월 4일 공주 신원사서



조계종 제6교구 스님들로 구성된 동림회(회장 성관 스님, 신원사 주지)가 1월 4일 공주 신원사에서 ‘계룡산과 불교’를 주제로 첫 인문학특강을 개최했다.〈사진〉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인문학특강을 통해 수행자 스스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제3회 백양아이 겨울 명상 캠프 성료

백양사, 1월 3~4일 경내서
40명 참여, 놀며 명상 배워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월 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내에서 ‘제3회 백양아이 겨울 명상 캠프’를 열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사진〉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생 40명이 참가해 입재식을 시작으로 △우리 사이 0cm △오! 센스 명상 △타종 체험 △다함께 Fire & Fun △부처님, 안녕하세요 △무지개 썬캐쳐 △마음 나누기 △어린이 수계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오감을 활용한 ‘어린이를 위한 명상’이 이번 캠프의 핵심으로, 놀이와 체험을 통해 명상을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구성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호흡과 집중, 감정 알아차림 등 명상의 기본 요소를 놀이 속에 녹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도법사로는 능견 스님(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형진 스님(광주연화어린이집 원장), 진선 스님(백양사 포교국장)이 함께했으며, 동국대 WISE캠퍼스 유아교육학과 학생 6명이 교사로 참여해 프로그램 운영을 도왔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와 학원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백양사에서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24주기 추모다례

해인사, 1월 5일 대적광전서
“청정 계행 되새겨 정법 실천”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조계종 10대 종정과 해인총림 6대 방장을 역임한 혜암당 성관 대종사 입적 24주기를 맞아 1월 5일 대적광전과 부도탑 일원에서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다례재에는 해인총림 방장 대원 스님과 주지 혜일 스님, 혜암문도 대표 성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부도탑 참배를 시작으로 대적광전에서 거불, 헌향, 헌다순으로 진행됐다. 방장 대원 스님의 헌다 후 종사영반과 추모 입정, 육성법어 봉독이 이어져 대종사의 법음과 수행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성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스님께서는 일생을 오로지 수행과 중생 교화에 바치신 분”이라며 “문도들은 스님의 청정한 계행과 무소유의 삶, 그리고 정진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법 실천으로 보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추모다례재가 대종사의 가르침을 다시 삶 속에서 되살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부대중은 삼배를 올리며 혜암 스님이 남긴 수행과 가르침을 오늘의 삶과 수행 속에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혜암당 성관 대종사는 1920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46년 해인사로 출가한 후 평생을 두타행과 용맹정진으로 일관해 온 선지식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월정사 대학생전법단, 대만 사찰 성지순례

12월 23~27일 대학생 30명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 소속 대학생전법단이 청년 포교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전법 행자로서의 원력을 다지기 위한 대만 불교 성지순례를 성료했다.〈사진〉 월정사 대학생전법단 30여 명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해 불광산사, 중태선사, 법고산사 등을 순례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금강사 회주 법장 스님, 박사학위 취득



김해 금강사 회주 법장 스님이 미국국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사진〉

12월 15일 서울대학교 글로벌 38동 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여용덕 세인트미션대학교 고등종교대학원장은 법장 스님에게 박사학위를 전달했다. 법장 스님은 ‘헌법과 불교 율법상 인권과 평화에 관한 연구’ 제하의 논문에서 헌법과 불교 율법의 자비와 평화 사상을 학제적으로 고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섭식장애, 발우공양 통해 치유 가능”

정명 스님, ‘한국불교학’ 제116호 발표 논문서

거식 · 폭식증 등 급격히 증가
불교 위빠사나, 치료적 활용
식사 방법 등 규정 ‘발우공양’
음식 섭취 마음가짐 재정립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발우공양을 표현한 닥종이 인형 작품.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 섭식장애의 치유법으로 발우공양 작법이 도움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섭식장애를 불교 식사법인 발우공양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명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은 한국불교학회 학회지 〈한국불교학〉 제116호에 발표한 ‘불교적 실천을 통한 섭식장애 관리-정신의학·한의학적 관점을 중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스님에 따르면 한국사회에 거식증, 폭식증 등 섭식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2018~2022년 5만여 명으로 연간 진료 인원은 49.9%가 증가했다. 섭식장애는 식사 제한, 폭식, 구토, 신체 왜곡, 저체중 부정 등 여타 정신질환과 다른 독특한 증상들이 나타나 조기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맥락에서 마음을 바로 보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을 주는 불교의 위빠사나 명상이 최근 섭식장애 치료에 임상적으로 활용하고 되고 있음에 주목한 정명 스님은 “〈사분율〉을 포함한 발우공양 작법이 마음챙김의 실천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비만율이 높은 서구에서는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식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동국대 종학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명상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한 진 크리스텔러 인디애나주립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마음챙김과 마음챙김 식사: MB-EAT, 현명하고 건강한 자기조절의 길’을 통해 ‘마음챙김 식사(MB-EAT)’의 소개와 실습을 진행했다.

당시 크리스텔러 명예교수는 “마음챙김 식사는 체중 감량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양보다 질’ 원칙과 짧은 명상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습관과 자기수용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서 “이를 통해 폭식장애 증상의 완화와 정서·영적 안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신의학·한의학적 사례를 분석한 정명 스님 역시 “식사 환경을 바르게 정립하며 여러 사회적 요인들을 조정하는 것이 섭식장애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발우공양’ 역시 섭식장애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스님의 주장은 불교적 식습관 연구가 섭식장애 치료와 연결될 수 있는 학술적·실천적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명 스님에 따르면 불교의 공양법은 〈사분율〉 바일제와 중학법에 기인한다. 바일제의 식생활 관련 계율들은 탐욕을 제어하고 절제를 생활화하며, 생활의 질서와 개인의 위생을 유지하며 마음챙김 하는 것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중학법은 단순히 식사 예절뿐 아니라 식사하는 매 순간 마음챙김으로 단정한 위의(威儀)를 갖추고 탐욕과 산만함을 제어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지침들이다.

발우공양의 기반이 되는 〈선원청규〉의 ‘부죽반(赴粥飯)’ 역시 발우를 놓는 위치부터 그릇의 용도, 염하는 ‘오관게’, 식사 규칙과 자세 등을 통해 어떻게 음식을 대하고 섭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명 스님은 “계율과 청규에 기반한 발우공양의 식사법이 마음챙김 식사의 원형”이라고 주장하며 “발우공양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비판단적으로 대상을 자각하는 마음챙김을 담고 있는 실천적 방법으로, 섭식장애 환자가 음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고 왜곡된 신체상을 바로 잡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세기 경기 불화 전형 ‘보물’ 된다

‘현등사 아미타설법도’ 등
국가유산청 지정 예고해

조선 시대 불화·불상과 통일신라 불상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조선 후기 경기 지역 불화의 흐름을 보여 주는 ‘가평 현등사 아미타여래설법도’를 비롯해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양산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일괄’ 총 4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가평 현등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화기(畵記)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59년(영조 35년)이라는 제작 연대, 오관(悟寬) 등의 제작자, 현등사라는 원봉


보물로 지정예고된 ‘가평 현등사 아미타여래설법도’.

안처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다.

국가유산청은 “현존하는 18세기의 경기 지역 불화가 많지 않은데, 이 작품은 당시 경기 지역의 불화와 화승들의 화풍, 18세기 불화의 흐름을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무엇보다 서울·경기 지역의 아미타설법도 중에서 제작 시기가 가장 빠르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불상과 대좌의 형식, 조형미, 진구사지에 있는 석등과의 비교 등을 통해 통일신라 하대인 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통일신라 하대 불교미술의 지방 확산, 불상 양식의 지역적 전파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실물 자료”라고 지정 예고 이유를 밝혔다.

‘양산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은 수조각승 승호(勝湖)를 비롯해 수연, 보장, 인원, 처행 등의 조각승들이 1682년(숙종 8년) 완성해 신흥사에 봉안한 작품이다.

국가유산청은 “경상 지역에서 유행한 불석제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 주며, 승호의 작품 중 주전각(主殿閣)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한 작품 중에서는 가장 이른 사례”라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대형불화 조사·분석 노하우 핸드북에 담다

국립문화유산硏 보존센터 발간
2015~2024년 정밀조사들 기반
괘불 조사 분석 노하우 담아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가 발간한 ‘대형불화 과학적 조사 핸드북’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불화인 괘불(대형불화)의 조사 및 분석 노하우가 담긴 핸드북이 발간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센터장 정소영)는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에 걸쳐 진행한 대형불화 정밀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대형불화 과학적 조사 핸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대형불화 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조사 방법과 유의사항, 분석 노하우를 현장 연구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무형 자료집이다. 국립기관과 지자체의 문화유산 담당자, 보존처리 전문가, 대학·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현장 조사와 보존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책자에는 대형불화의 손상 상태 조사 방법과 손상 양상, 육안 관찰로 확인되지 않는 밑그림 등을 확인하는 적외선 조사, 대형불화 제작에 사용된 재료(직물·안료·목재·배접지) 분석, 미생물 분석 방법을 실었다.

이번 책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 지식이음 누리집(portal.nrich.go.kr)에서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학술연구와 현장 조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대학원생 불교 특강’ 불교학연구회 워크숍

2월 23~23일 전문가 강연

불교철학 최신 연구를 선도하는 전문 학자들의 특강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김원명)는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경남대교양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2026동계 워크숍’을 개최한다.

함형석 전남대 철학과 교수·이상엽 서울대 철학과 교수·고승학 서울대 철학과 교수 등 인도·초기 중국·당송대 불교철학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은 2월 23~25일 특강과 26일 학생 논문 발표로 나뉘어 서울대 14동 213호에서 진행된다.

워크숍은 불교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구글폼(https://forms.gle/TQzkPmm6ZSh4FWZW8)에서 신청하면 되며 구글폼 작성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bulgyohak@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10만원. 신중일 기자

‘성운·한불학 학술상’ 한국불교학회 공모

염불신앙 및 선불교 주제

한국불교학회(회장 자현 스님)가 한국불교학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제정된 제9회 성운학술상과 제2회 한국불교학회 학술상 논문을 동시에 공모한다.

제22대 한국불교학회장을 역임한 성운 대종사의 원력으로 제정된 성운학술상 공모 분야는 △경전 상에 나타난 염불신앙에 대한 고찰 △염불신앙을 통한 재가자와 출가자의 가피 사례 연구 등이다.

접수는 이메일로 가능하며, 수상자는 4월 30일 이전 개별 통보된다. 시상식은 5월 중 열리는 ‘제9회 성운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신설된 ‘한불학 학술상’은 ‘동아시아의 선불교를 말하다’를 주제로 논문 공모가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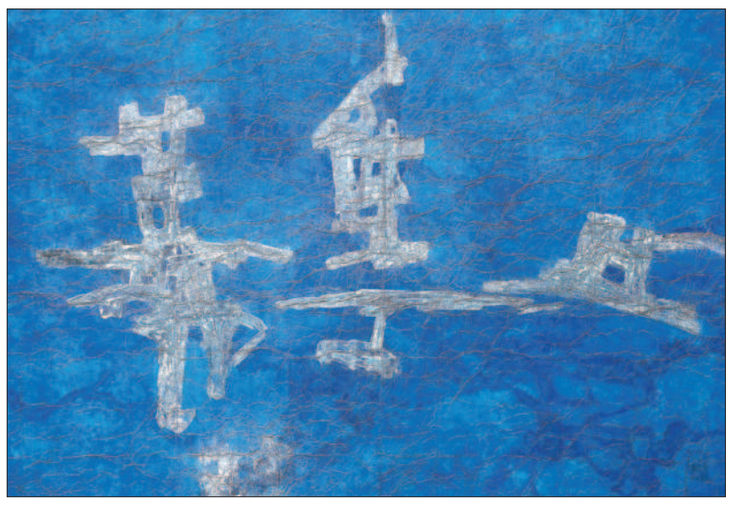
지원 자격은 한국불교학회 정회원 중 석사 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접수는 2월 28일까지다. 결과는 4월 중 발표되며, 시상식은 4월 개최 예정인 ‘춘계학술대회’에서 거행된다. 신중일 기자



수해 딛고 단단해진 원로 화가의 작품세계

월하미술, 한국화가 임효 개인전
종로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서
2022년 수해 後 3년간 창작 몰두
한층 깊어진 독자적 조형언어 눈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임효 작가의 작품 '층위인연(133x192cm, 한지, 옻칠, 주석분, 2025)'.

2022년 여름밤에 내린 큰 비는 원로 한국화가의 작업실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손쓸 틈도 없이 들이 닥친 탁류는 오랜 세월 작가가 그려온 그림들을 그대로 수장(水葬)시켰다. 자식 같은 작품들을 잃어버린 작가를 다시 일으킨 것은 '비움'이었다. 두려움에 다시 붓을 들기도, 한 획을 긋기도 어려울 때 "수해는 파괴였으나 동시에 비움"이었다는 깨달음이 들었고 그 공(空)적인 시공간에서 작가는 그림을 그려나갔다. 이 순간에 대해 작가는 이 같이 회고 했다.

"모든 것은 사라지며 다시 생성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재해 이후 나는 내 의지를 앞세우기보다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은 의지를 꺾는 시간이 아니라 의지를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새로운 조형의 세계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생성(生成)의 시간'입니다."

한국화가 임효(70)가 수해로 인한 절망적 시간을 이겨내고 3년여 만에 한층 단단해진 자신의 작품세계를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전북도립미술관이 주관하고 갤러리 월하미술(대표 신영채)이 주최하는 임효 작가의 개인전이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전북도립미술관 서울 분관에서 개최된다. '연시(連時)~시간을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통 재료를 기반으로 현대적 조형 언어를 구축해 온 임 작가의 최근 신작들이 대거 소개되는 자리로 작가는 자신의 예술의 핵심 개념인 '생성(生成)의 회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작가는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2022년 여름 수해로 작업실과 다수의 작품이 침수된 이후 약 3년에 걸친 '복구와 재생의 시간'을 견디며 다듬은 신작들로 다수 출품한다. 물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기억의 변형'으로 화폭에 남아, 새로운 시간의 지층을 형성한다. 이밖에 지난 2년간 신규 제작한 최근 작품들을 대형 신작들과 함께 선보인다.

한마음선원을 창건한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 영문판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의 삽화를 맡았던 임 작가에게 작품은 곧 수행이다. 그는 "이제 나의 그림은 미리 정해 놓고 가는 길이 아니다. 예측하지 않고 부딪치며 보이지 않음 속에서 자신을 확인해 가는 수행"이라며 "형을 만들고 다시 지우며 형 이전의 자리를 더듬어 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추운 겨울, 템플스테이로 특별한 시간을 보내세요

한문 강의, 썰매 타기 등 프로그램 '다채'

묵은 해를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는 연말연시는, 새로운 계획을 설계하고 다짐하는 시기다. 연말연시와 겨울 방학을 맞아 전국 52곳 사찰에서는 이색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이 2월까지 다양하게 진행된다.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위한 템플스테이로는 전북 부안 내소사의 '놀면서 배우는 한문학당'이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문 강의와 체험학습, 자연 탐방을 결합한 구성이다. 충북 보은 법주사는 어린이 선명상과 보물찾기, 썰매 타기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겨울방학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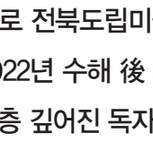
성인과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경기 고양 흥국사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명상에 집중하는 '겨울방학 도파민 디톡스' 템플스테이가 있다. 경기 양주 육지장사의 '단.단.단: 단식은 단순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템플스테이는 호흡과 명상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체험이 가능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겨울 특별 템플스테이는 어린이와 가족, 성인까지 각자의 삶의 속도에 맞춰 사찰에서 쉼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병오년 새해를 평안하게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 신청 및 사찰별 상세 일정과 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겨울 템플스테이 주요 일정

사찰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간략 소개	진행 기간
관문사	'소원을 빌어 봐' 송구영신 템플스테이	타종, 소원지쓰기, 우면산소망탑산책	25.12.31~26.2.28
국제선센터	설날맞이: 내마음에선함	사찰전통새해인사'통알', 초공양, 성불도놀이	26.2.16~2.18
	내마음에선함: 겨울의고요	자개전통미니찻상만들기, 아크릴무드등DIY	26.1.30~2.1
범어사	청춘 템플스테이	숲길포행, 사물관람, 성보박물관 관람	25.12.24~26.2.28
선암사	고요에 머무는 이틀_수험생을 위한 특별 휴식 템플스테이	예불, 108배, 꿈단주만들기, 명상	26.1.15~16/ 26.2.19~20
도림사	대학생과 수능생을 위한 특별 방학템플스테이	예불, 108배, 염주 만들기, 포행	25.12.17~26.1.31
무각사	절친 청소년 템플스쿨	염주만들기, 명상, 와플만들기, 다도체험	26.1.17~18
묘적사	냥이와 함께하는 대학생, 수능생 대상 새해맞이 특별템플스테이	단주만들기, 소원지 작성, 계곡명상, 스님과의 차담	26.1.20~21
용주사	작은 쉼표 템플스테이	차담, 사찰소개, 범종체험, 예불	25.12.2~26.2.27
육지장사	단.단.단: 단식은 단순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온구체험, 선차공양, 108배, 산소호흡명상	26.1.2~2.28
화운사	사찰에서 명상하고, 에버랜드에서 신나게~	명상, 단주만들기	26.1.7~2.4
흥국사	겨울방학 도파민 디톡스	셀프 디톡스, 마음필사, 숲명상	26.1.7~2.28
용연사	겨울, 산사에서 마음을 그리다	별바라보기, 단청&불교캐릭터키링만들기	25.12.17~26.3.15
구인사	나를 만나는 여행, 겨울 구인사 템플스테이	염주 만들기, 묵언 사찰 투어, 예불	26.1.1~31
반야사	"겨울방학 선물" 템플스테이	합장주, 연꽃만들기, 호흡명상, 부처님채색명상	25.12.18~26.2.27
법주사	겨울방학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선명상 템플스테이	어린이 선명상, 보물 찾기, 썰매 타기	26.1.23~25
	[설맞이] 특별템플스테이	은행윷 만들기, 수정봉 트래킹 및 해맞이, 통알	26.2.16~18
수덕사	어린이 겨울방학 템플스테이	다도체험, 연꽃등명상, 싱잉볼명상	26.1.22~24
	청소년 겨울방학 템플스테이	전문가와문화유산이야기, 택견, 문화유산투어	26.1.11~13
내소사	겨울방학 놀면서 배우는 한문학당	한문강의, 체험학습(직소폭포탐방등), 수료식	2차 26.1.21~24/ 3차 26.2.4~7
선운사	펜 내려놓고 천마봉 정상으로!	선명상, 염주만들기, 천마봉트레킹, 국선도, 불멍	1차 26.1.16.~18/ 2차 26.1.23~25
송광사	잠시, 나에게 따뜻한 선물을 '템플스테이'	108배, 스님과의 차담, 새벽예불, 소원지 작성	26.1.1 ~2.28
대흥사	겨울잠든 나를 깨우는 요가 명상 템플스테이	요가, 108배 염주 만들기, 스님과 차담	26.1.10~3.1
도갑사	명상 리트릿(싱잉볼 · 茶 · 香 · 詩 · 명상)	에니어그램, 싱잉볼명상, 차명상, 향기명상, 시시한쉼	26.1.1~2.28
무위사	겨울방학, 월출산 보름달 템플스테이	달맞이월출산녹차밭야행, 벽화퍼즐, 차담, 명상	1차 26.1.3~4/2차 26.1.31~2.1
미황사	겨울 산사에 머무는 하얀 숨!	겨울 숲길 걷기, 온기차담	26.1.6~2.28
백양사	백양아이 겨울 명상캠프	명상, 불멍, 레크레이션, 수계식	26.1.3~4
용흥사	'너나들이' 겨울방학 특별템플스테이	담양 문화 체험,소원등 만들기, 108배, 저수지포행	26.1.22~24
향일암	향일암 병오년 신년 '나만의 DIY'	예불, 별보기, 명승지 물멍&해멍, 단청체험	26.1.9~11/1.16~18
대승사	사불암에서 바라보는 나~	단청 색입히기, 108배, 암자순례	26.1.7~25
대원사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108배, 염주만들기, 좌선대명상, 스님과의차담	25.12.15~26.2.28
	"수고많았습니다~"	108배, 염주만들기, 좌선대명상, 스님과의차담	25.11.11~26.1.30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부르지 않아도 다가서는 사랑

㉕ 불청우(不請友)

친하게 지내는 도반 스님 두 분의 수행 신조를 나는 따르고 있다. 한 분은 번역과 강의를 병행하며 전국을 다니는 스님이다. 이 스님은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을 서너 번씩 갈아타며 먼 곳까지 법문과 강의를 마다하지 않는다. 자가용 없이 그리 다니면 피곤하고 불편하지 않느냐고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다.

"대중이 청하지 않아도 가서 부처님 법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뭐라고 부르는 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이후로 나 또한 법을 청하는 곳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꺼이 간다.

또 다른 도반 스님은 주변에서 건강을 염려할 만큼 지인들의 애경사를 세심히 챙기고, 의미 있는 집회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분이다. 이 스님은 자신의 소회를 이렇게 들려주었다.

"수행자가 경사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지인들이 크게 서운해하지는 않더라. 하지만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찾아가지 않으면 서운함이 오래 남더라."



그래서 이 스님은 불러주지 않아도 상가를 찾아 염불과 기도를 올리고, 병문안 또한 거르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고, 나도 그 뜻을 따르려 노력하고 있다.

청하지 않았는데도 기꺼이 찾아가는 벗을 경전에서는 '불청우(不請友)'라 한다. 나와 너를 가르지 않는 자타불이(自他不二), 이웃의 아픔이 그대로 내 가슴의 통증으로 전해지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부르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 위로하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게 된다. 〈화엄경〉 〈유마경〉 〈법화경〉 〈대집경〉 등 대승경전 곳곳에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불청우의 보살 수행이 거듭 설해진다.

백제인의 후손으로 전해지는 일본의 나라 시대 행기 스님(668~749)은 이러한 불청우 수행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민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그는 양로원과 고아원을 세웠고, 당시 정부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제방 15곳, 항구 2곳, 다리 6곳, 빈곤자를 위한 숙박시설 9곳을 건립했다. 보살은 요청을 기다리지 않는다. 연민과 지혜의 눈으로 중생의 소리 없는 신음을 먼저 듣기 때문이다.

불청우 수행의 근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6년의 수행 끝에 정각을 이루신 뒤, 보드가야에서 사르나트까지 약 250킬로미터의 먼 길을 걸어 다섯 수행자에게 법을 전하셨다. 처음 그들은 부처님을 경계했지만, 부처님은 지극한 정성으로 가르침을 베풀어 마침내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다. 또 〈증일아함〉에는 병들어 아무도 돌보지 않아 오물 속에 방치된 비구 제자를 부처님께서 조용하 찾아가 몸을 씻기고 손수 간호하신 이야기가 전해진다. 누구의 요청도 없었지만, 부처님은 먼저 움직이셨다.

오늘날에는 각계각층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 보살들이 이 불청우 정신을 살아내고 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픈 소리에 귀 기울이며 먼저 손을 내미는 천수천안(千手千眼)의 관세음보살, 그 이름이 바로 불청우 보살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연기를 보면 곧 진리를 본 것이다!
쫑카빠의 연기찬 주석
쫑카빠는 불교의 가장 기본 사상인 '연기'를 52개의 간략한 게송으로 보여주고, 여기에 짱캬 롤빼돌제가 주석을, 역주자가 알기 쉬운 설명을 붙였다.
쫑카빠 게송, 짱캬 롤빼돌제 주석, 정성준 옮김/신국판/316쪽/값 20,000원

대승의 기원을 다룬 기념비적인 책!
불교와 에크리튀르
서양 인문학의 첨단 이론을 과감하게 접목하여, 대승불교의 역사를 사상사뿐 아니라 사회사의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모다 마사히로 지음, 박현진 옮김/신국판/480쪽/값 28,000원

불교사상과 최신 생물학의 연관성을 탐구!
다르마와 DNA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인 저자가 DNA라는 구체적 실험 대상을 통해 불교의 명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불교 사상의 원리와 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디 덴버 지음, 이동수 옮김/신국판/360쪽/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7~1/13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그녀는 다시 태어나지 않기로 했다	조민기	조계종출판사	6	마음챙김의 시	류시화	수오서재
2	고광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7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	한정섭	불교통신교육원
3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박산무이스님의 참선경어)	원택	장경각	8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류시화 엮음	오래된미래
4	무언화	덕조	조계종출판사	9	약사유리광 칠불본원 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5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10	위로와 평안의 시	김옥림	미래의서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선요가	아헹가/현천 역	6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한국요가출판사	사라스와띠
2	능엄경주해	동국역경원	이운허 역해	7	초기불교 이해	초기불전연구원	각묵 스님 지음
3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운주사	틱낫한/허우서,허주형	8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오타쿠	김성철
4	한 생각 공부	한생각	종범 스님	9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하늘호수	초펠 편역/게시 소남
5	진짜 나를 찾아라	샘터사	법정	10	중론	오타쿠	용수 지음/청목 주석

괴로움을 놓는 단 한 문장



탁! 깨달음의 대화
법륜 스님 지음
정토출판
1만7000원

마음의 핵심 찌르는 '즉문즉설'
'깨달음의 촉발' 이끄는 문답
"답은 질문자 안에서 열린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법륜 스님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청년페스타-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움직임'에서 법문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의 신간 〈탁! 깨달음의 대화〉는 그동안 진행된 수많은 '즉문즉설' 가운데 마음의 핵심을 찌르는 대화들을 가려 뽑아 선문답 형식으로 엮은 책이다. 장황한 설명 대신 짧고 정확한 말로 괴로움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복잡한 마음을 단번에 정리해 주는 처방전이다.

'즉문즉설'에서 법륜 스님은 늘 단호하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질문하는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의 답을 바깥에서 찾지만, 스님은 질문자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다.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질문자는 스스로 말한다. "아, 별일 아니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책에 실린 대화들은 '탁'하는 그 깨달음의 순간이다. 괴로움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하다고 믿고 있는 마음이 괴로움을 키운다는 사실을 질문자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즉문즉설'의 답은 문제 해결이라기보다 '깨달음의 촉발'에 가깝다. 삶의 문제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문답의 진행은 마치 선사들의 선문답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 내용은 난해한 공안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겪는 고민들이다.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고, 가족의 태도에 분노가 일며,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평범한 괴로움들이다.

상사의 막말 때문에 괴롭다는 직장인에게 스님은 묻는다. "누가 쓰레기가 든 봉지를 던져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야죠." "받기 전에 쓰레기인 줄 알았다면 그건 누구 겁니까?" 질문자는 그제야 멈칫한다.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 순간 '탁!'하고 드러나기 때문이다.

법륜 스님의 비유는 짧고 날카롭다. 복잡한 심리 분석도, 윤리적 훈계도 없다. 다만 상황을 비틀어 보여줌으로써 질문자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게 만든다. 짧은 문장과 대화를 따라 읽다 보면 독자는 어느새 자신의 괴로움을 떠올리고, 그 괴로움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알아차리게 된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은 질문자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비유로 마음의 실상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 역시 질문자가 되어 대화 속에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게 된다.

이 책은 법륜 스님의 새로운 말이기보다, 부처님의 오래된 가르침을 지금 여기의 언어로 되살린 '현재진행형 법문'이다. 하루 한 문장, 한 대화씩 읽으며 '탁!'하고 멈춰 설 수 있다면 괴로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에 속지 않는 '마음 사용 설명서'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1만9000원

마음의 구조와 작동 원리 탐구
'기억·견해' 순환 속 마음 작동법

"마음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유튜브와 강연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보만 스님이 '불교심리학' 강의를 바탕으로 '마음 사용법'을 정리한 책이다.

보만 스님은 "마음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기억·견해·정신을 제시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은 기억에 저장되고, 그 기억은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를 만든다. 그 견해로 세상을 해석하는 순간 또 다른 기억이 쌓이는데, 마음은 이 '기억-견해'의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한다. 이처럼 생각과 감정이 쉴 새 없이 몰려와 마음이 고장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소란의 한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이란 이름을 빌려왔지만, 마음을 유추하기 위해 말과 행동을 연구하는 일반 심리학과 달리 '불교심리학'은 그 이면에 작동하는 마음의 구조와 원리를 탐구한다. 또 기존의 '나'라고 여겼던 틀과 생각, 관점에서 벗어나 '걸림 없는 나[無我]'를 확인하도록 한다.

책은 마음 사용 설명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본다. 마음이 어떤 부품으로 되어 있는지, 작동 원리는 무엇인지,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망가진 마음은 어떻게 수리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안내한다. 당장 마음이 힘든 사람이라면 나에게 필요한 상황별 회복 매뉴얼을 찾아 읽어도 좋다. 여수령 기자

수행자 설잠, 김시습을 다시 읽다



신편신역 김시습 전집 (전 6권)
심경호 신역 · 주해 / 부여문화원 · 매월당김시습기념사업회 / 비매품

설잠 스님 출가·시대 인식 조명
선·교 아우른 수행의 흔적 좇아

조선 전기 숭유억불의 시대를 살았던 김시습(1435~1493)은 대체로 '생육신'과 '천재 문인'으로 기억된다. 단종에 대한 절의를 지킨 충신, 혹은 〈금오신화〉를 남긴 문장가. 그러나 김시습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삭발염의하고 구도의 길을 걸었던 수행자, 설잠(雪岑) 스님이다.

부여문화원(원장 박종배)과 매월당김시습기념사업회(회장 소종섭)가 펴낸 〈신편신역 매월당 김시습 전집〉(전 6권)은 500여 년의 시간을 건너 김시습을 '사상가이자 수행자'로 온전히 복원한 책이다.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들은 김시습은 읽고 있던 책을 모두 불사르고 스스로 머리를 깎았다. 분노의 표현이나 은둔의 선택이 아닌, 세속 질서와 가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한 결단이었다. 그는 과거 급제를 통한 입신양명도, 관직을 통한 현실 개혁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길 위에서, 전국의 산사와 명산을 유람하며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전집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김시습을 유교적 절의의 상징이나 문학사의 기념비로만 다루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그의 사유와 실천을 재배치한다. '생육신 김시습' 이전에 '수행자 설잠 스님'이 있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전집에는 설잠 스님이 전국을 떠돌며 남긴 방대한 시문은 물론, 선학과 교학의 정수가 담긴 저술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문장 곳곳에는 무상(無常)에 대한 깊은 성찰과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스며 있다. 특히 불교 관련 시문과 저술은 〈한국불교전서〉를 바탕으로 원문을 다시 교감해 오류를 바로잡았다.

전집의 또 다른 성과는 제목 그대로 '신편'과 '신역'에 있다. 기존 전집을 면밀히 검토해 오류를 바로잡고 새 자료를 발굴·보완했으며, 오늘의


설잠 스님이 입적한 부여 무량사는 해마다 10월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는 다례재를 봉행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독자를 염두에 둔 새 번역을 제시했다. 1493년 무량사에서 발간된 〈법화경〉 발문, 불갑사 소장 〈수능엄경〉 발문, 일본 내각문고에서 확인된 〈임천가화〉 등은 이번 전집의 학술적 성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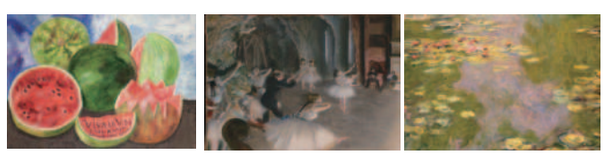
김시습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명예교수가 신편·신역·주해를 맡아 전집의 신뢰도를 높였다. 번역문 곳곳에 덧붙인 해설은 문장과 시대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읽히는 전집'을 위한 이 같은 노력은 설잠 스님을 처음 만나는 독자도 사유와 문제의식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

여수령 기자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림이 있나요?"

서울대 철학박사 보일 스님의
내 삶을 위로하는 명작(名作) 읽기!

34명 예술가의 삶과 작품으로
배우는 인생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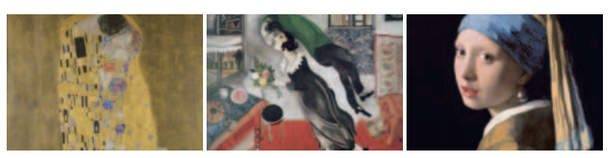




미술관에 간 스님
알고 보면 더 힘이 되는 미술 명작 수업
보일 지음 | 360쪽 | 20,000원 | 불광출판사

"예술은 고통을 다루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다"

고통 속에서 해방의 길을 찾아낸 대가들의 기록,
불후의 명작을 불교적 사유와 통찰로 재해석하다



보일 스님
신간 출간 기념 북 콘서트



• 일시: 2026년 1월 13일(화) 19시
• 장소: 책다방 with 카페꼼마(서울시 구로구)
• 모집 인원: 20명(선착순)
• 참가비: 무료
• 참가신청: 아래 QR 코드 접속 후 참가신청서 작성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펫로스 증후군’ 치유하는 불교적 통찰



마지막 산책
덕운 스님 지음
담앤북스
1만7000원

상실 아픔 극복 위한 ‘애도할 권리’
공허감·죄책감, 불교적 관점 해석
일상서 실천 가능한 ‘선명상’ 제안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왜 그렇게 유난이야?”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이들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상실감과 슬픔, 죄책감, 공황 등으로 고통받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 그 아픔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실의 시간을 견디는 이들에게 무심한 말 한마디는 또 다른 상처가 된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 이제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은 개인의 나약함이나 과민함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고통이 됐다.

덕운 스님(서울 충정사 주지)의 신간 〈마지막 산책〉은 반려동물과의 이별로 깊은 상실을 겪는 이들을 위한 불교적 치유서다. 스님은 펫로스를 심리적 증상으로만 보지 않고 생명과 인연, 돌봄과 책임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바라본다.

“반려동물과의 유대는 가족애, 돌봄, 일상의 의미가 겹쳐 형성된 관계이기에 상실의 충격도 깊고 복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애도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울음과 침묵, 기억과 이야기, 작은 의례와 기록은 모두 정당한 애도의 방식입니다.”

덕운 스님은 책에서 펫로스의 아픔을 직시하고, 불교의 연기·무아·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명상 수행법과 구체적인 애도·회복 루틴을 제시한다. 특히 반려견과의 만남부터 이별까지의 과정을 수행의 여정으로 바라보며, 돌봄의 시간 자체가 이미 수행이었음을 일깨운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반려동물과 처음 만났던 순간의 기억과 불교 경전 속 동물과 인간의 인연을 소개하며 생명 존중의 토대를 놓는다. 반려동물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존재이며, 그 관계는 수행자의 마음가짐과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2장에서는 펫로스 이후 찾아오는 공허감과 분노, 죄책감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왜 더 잘해 주지 못했을까’라는 자책은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책임으로만 환원될 수 없으며, 무아의 지혜는 집착을 내려놓고 슬픔을 관조할 힘을 준다. 반려견 ‘세콤’과의 만남과 입양 과정을 소개하며 인연이 소중함을 생생하게 전한다.



덕운 스님과 반려견 세콤이. 사진 제공=담앤북스

책의 핵심은 3장에서 제시하는 선명상 실천이다. 덕운 스님은 펫로스를 겪는 이들이 극심한 불안과 과각성 상태에 놓이기 쉽다고 진단하며, 이를 완화하는 수행으로 선명상을 제안한다. ‘우선멈춤 선명상’, ‘셀패스 선명상’, ‘무시로 선명상’ 등은 일상에서 짧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스님은 “이별의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실천은 ‘진심으로 보내는 태도’”라며 “이별을 마주하는 명상은 고통을 단순히 덜어 내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수행이며, 이별의 경험을 삶의 지혜로 바꾸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4장에서 제시하는 ‘애도와 회복의 4주 루틴’은 하루하루 감정을 기록하고, 짧은 명상과 추모 의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평온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이는 상실을 ‘끝내야 할 감정’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노견과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별 이후 남겨진 물건과 기억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도 현실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명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개 식용 문화에 대한 불교적 성찰, 반려문화가 사적 애정을 넘어 공공의 윤리로 확장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시한다. 반려동물을 사랑했던 경험은 다른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더 넓은 자비로 나아가는 수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괜찮다”고 쉽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곁에 앉아 함께 숨을 고르며,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반려동물과의 인연을 통해 삶의 깊이를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수행자의 언어로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이다.

덕운 스님은 통도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용주사 교무국장,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호법국장, 기획실 감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전문위원이며 ‘생명존중 미앤펫 캠페인’을 통해 현대인의 불안과 외로움을 보듬고 있다.

‘진심’을 바로 보게 하는 직설



정언 선사의 진심직설
이강욱 강설
조계종출판사
2만5000원

원 저자 되찾은 첫 강설
“진심을 믿고 바로 보라”

〈진심직설〉은 우리나라 선가의 수행자들과 불자들이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온 책이다. ‘진심을 보는 것이 곧 견성이요 해탈’이라는 선언 아래 ‘본래 마음’을 바로 보게 하는 이 책은 그동안 고려 보조 국사 지눌(1158~1210)의 저술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로 원 저자가 정언(政言, ?~1185) 선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책은 정언 선사의 〈진심직설〉 원문을 새롭게 번역하고 강설을 덧붙인 책이다. 정언 선사가 말하고자 했던 ‘진심 수행’의 본뜻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린 첫 책이란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12세기 금나라 시대를 살았던 정언 선사는 어린 나이에 출가해 유식학을 공부하다 선으로 전향했고, 자조 선사와의 문답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여러 사찰에 주석하며 〈금대록〉, 〈진심직설〉, 〈수행십법문〉 등을 남겼다. 그러나 이후 〈진심직설〉은 저자 미상의 저술로 전해졌고, 18세기 말 조선에서 보조 지눌의 저술로 오인되며 그 이름이 굳어졌다.

〈진심직설〉은 제목 그대로 ‘진심에 대해 곧바로 말한 책’이다. 정언 선사는 우주 만법의 근원을 진심으로 보고, 진심과 망심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진심은 본래 청정하고 완전하지만, 망심이 이를 가릴 때 중생은 생사윤회의 괴로움 속을 헤맨다. 수행이란 새로 무엇을 얻는 일이 아니라, 이미 갖추어진 진심을 그대로 보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 책의 일관된 메시지다.

책은 ‘진심의 바른 믿음’에서 출발해 ‘진심의 묘체와 묘용’, ‘진심이 미혹에 있을 때’, ‘망심을 쉬는 법’, ‘행주좌와에 통용되는 수행’에 이르기까지, 진심의 여러 측면을 15장에 걸쳐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경전과 조사 어록을 폭넓게 인용해 ‘진심 수행’이 선불교 전통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고, 이를 오늘의 삶과 연결하는 설명은 수행서로서의 실천성을 한층 강화한다.

여수령 기자

몸과 마음을 살리는 자연 요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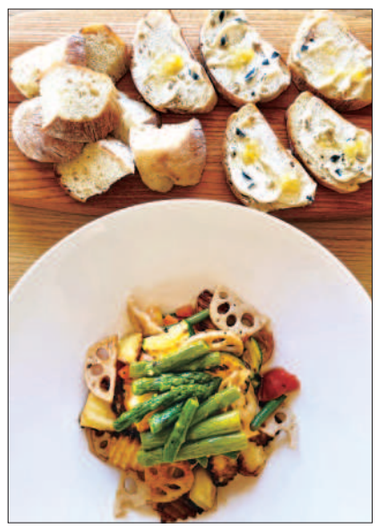


경봉 스님의 무해한 식탁
경봉 스님 지음
책공장더불어
1만7000원

잣국수, 연두부 치즈, 망고볶음밥.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 선재 스님(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1호)이 출연해 사찰음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몸과 마음을 살리는 자연 요리법을 제안하는 책이 출간됐다.





경봉 스님과 스님이 만든 ‘무해한’ 음식들. 무반죽 빵과 단감 스프레드, 채소볶음.
사진 제공=책공장더불어

‘채식은 어렵다’ 편견 깨는 113가지 요리법
“정성 더하고 탐욕 덜어낸 것이 사찰음식”

〈경봉 스님의 무해한 식탁〉은 자연식과 발효 음식을 연구해 온 경봉 스님(마내하우스 자연식연구소 대표)의 첫 책이다. 여동생인 진염 스님과 남동생인 정엄 스님, 그리고 반려견 선우·파랑이·오페라와 함께 나눈 ‘무해한 식탁’의 레시피를 담았다. 스님이 직접 찍은 음식과 반려견 사진이 정겹다.

스님은 책에서 “채식은 손이 많이 가고 만들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는 113가지 요리를 소개한다.

잣국수와 채개장, 강된장 등 전통적인 사찰음식은 물론 쌀누룩 요거트를 넣어 만든 무반죽 빵, 연두부로 만든 비건 치즈, 인도네시아 전통 발효 음식인 템페까지 다채로운 자연식을 만날 수 있다. 버섯덮밥, 망고볶음밥 같은 한 그릇 요리와 중식 마파두부나 유니짜장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또 요리의 기본이 되는 채수 만드는 법, 간장의 종류와 사용법도 소개한다. 반려견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머핀, 토마토 스파게티 등도 눈길이 간다.

경봉 스님은 “사찰음식은 특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저 절에서 스님들이 먹는 음식이며, 굳이 특별함을 찾는다면 음식을 준비하는 이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이다.

“채소를 다듬고 쌀을 씻는 일이 모두 수행이다. 재료를 준비하는 그 순간에도 욕심이 들어앉을 틈이 없어야 한다. 먹을 만큼의 반찬을 만들고, 필요한 만큼의 식재료만 취한다. (중략) 요리의 모든 과정에 정성은 더하고 탐욕은 덜어 낸다. 그러면 그것이 사찰음식이다.”

경봉 스님은 “몸과 마음에 독이 되지 않고, 자연의 순환을 거스르지 않으며, 함께하는 이에게 상처 주지 않는 음식과 그 음식을 닮은 삶을 통해 맑고 단정한 마음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한다.

경봉 스님은 동학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현재 마내하우스 자연식연구소 대표로 쌀로 만든 발효 요거트 ‘빛쌀’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발효 음식을 연구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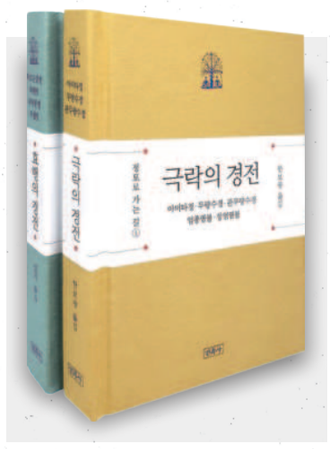
가장 따뜻한 위로, 마음을 밝히는 한 권의 경전
스테디셀러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선물하세요!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AI시대, 계로 삶을 주도하다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① 계와 율, 그리고 불제자

sabbapāpassa akaraṇaṁ kusalassa upasampadā sacittapariyodapanaṁ
etaṁ buddhā na sāsanaṁ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基意 是諸佛教
모든 죄악을 짓지 말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을 받들어 행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니라.
〈법구경〉



불교에 귀의하면 실천윤리로서 누구든 계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범어사에서 봉행된 조계종 제4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AI시대 바른 판단과 주도적 삶에
좋은 기준과 생활습관 정립 필요
지혜 발현하고 바른 삶 살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계 실천해야

'실재보다 더 실제 같은' AI시대

최근 수많은 매체를 통해 AI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AI는 인공지능, 즉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래전 공상과학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AI 기술은 사람이 하기에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대신 처리할 수도 있고, 사진을 편집하거나 음악과 영상을 만드는 문화적 창작도 할 수 있다.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세상의 모든 지식 정보를 찾고, 그 자료를 정리하고, 나아가 과제나 논문까지도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스님을 대신해 의례를 집전하거나 법문도 할 수 있다.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며 창작하는 AI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처럼 AI는 인간을 도와주며 더 편리하고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측면이 있다.

반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검색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유사한 정보를 보여 주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는 알게 모르게 AI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때론 AI 기술이 나의 대화를 듣고, 나의 검색 기록 등을 데이터화하고 축적해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천하는 것이 과연 편리한 기술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AI가 실재보다 더 실제 같은 결과물을 생산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정보인지, 나아가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진실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진실 여부 판단 위한 지혜 필요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의 진실과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하는 사용자의 지혜가 필요하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자신의 열반 이후에 가르침의 진실을 구분하기 위해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을 것을 당부하고, 또한 '사결정설(四決定說)'을 통해 바른 법을 스스로 확인하라고 말씀하셨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를 키워야 한다.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불교적 관점에서 좋은 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좋은 생활 습관은 바로 '계'의 가르침이다.

여기 백거이와 도림 선사의 이야기를 보자. 중국 당대 대시인 백거이가 항주자사로 부임한 후, 부처님의 가르침이 궁금해 항주 진망산에서 수행하며 조과 선사로 불린 도림 선사를 알현했다. 백거이가 선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묻자, 선사는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착한 일은 다 하라'라는 〈법구경〉의 구절을 들려주었다. 백거이는 "세 살 어린아이도 아는 이야기가 아닙니까"라며 반박했다. 도림 선사는 다시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으나 여든 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며 바른 삶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했다. 도림 선사가 말한 '여든 먹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계(戒)다.

계는 윤리적, 율은 규칙적 의미

우리는 '계'와 '율'을 '계율(戒律)'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이해하며 사용한다. 하지만 둘은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기엔 의미에 차이가 존재한다. 계는 'sīla(尸羅)'이며 '습관성·경향·성격'이라는 의미와 '좋은 습관성·좋은 행위·도덕적 행위'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반면 율은 'vinaya(毘奈耶)'로 '이끌어 가다·가지고 가다·제외하다'라는 의미와 '훈련하다·교육하다', 그리고 '규칙'이라는 의미도 내포한다.


2024년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국제선명상대회 불교도대법회'에서 열린 '국민오계 수계법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결국 계는 윤리적, 율은 규칙적 의미로 요약해 설명할 수 있다. '계'는 '우리가 지키고 실천한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율'은 '사회 구성원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나 단체가 강제적인 규율로서 적용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대학교의 학과로 비유해 보면, 계는 '윤리학과'로, 율은 '법학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두 학과가 성격 측면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계와 율도 가까운 듯 먼 관계라 할 수 있다.

계는 최소한의 생활방식

불교에 귀의하면 실천윤리로서 누구든 계를 받는다. 좁게는 오계부터 넓게는 보살계까지 불자라면 반드시 수계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수계한 계의 조문이 부담스러운 까닭은 도림 선사의 가르침처럼 여든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도 계를 받았기에 실천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게 된다. 실천 의지는 내가 가진 습관을 변화시킨다. 계를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발심한 의지가 잘 실행되도록 수계자의 마음속에서 의도(cetanā)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를 통해 좋은 습관을 키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계는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람직한 생활방식으로, 스스로의 결심을 통해 실천하게 된다. 이러한 결심은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이끌고 더 나은 삶으로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를 인도한다. 지혜를 발현하고 바르게 사는 삶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시작이 바로 계를 받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놓지 않을 때 진정한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AI와 구별되는 것 역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세상의 진리를 보여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절절하다.

'바른 삶' 살기 위한 기준 '계'

우리는 AI를 포함한 거대한 지식들, 주변 사람들을 통한 정보들,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정보들까지, 이루 다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 앞에서 과연 무엇이 진실하고 바른 정보인지 선택하고 판단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바른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구하려는 자세는, 손쉽게 얻어지는 정보에 기대거나 맹목적으로 AI 기술에 의지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반성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바른 판단을 위해 지혜를 키워야 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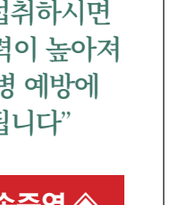
부처님의 계는 쉽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 그러나 나 자신의 올바른 삶과 바른 가치관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하는 것이 계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사람이 중심이 아닌, 물질과 그 물질이 주는 편리함이 더 중요시되는 가치전도의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다. 불교라는 종교는 수행을 통해 인간 삶의 질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하며, 이상적인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는 인류의 보편적 윤리인 까닭에 '도림 선사와 백거이의 일화'처럼 실천에 대한 어려움을 항상 수반한다.

그렇지만 계를 실천하는 어려움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애초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놓아버릴 필요는 없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계를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어느덧 스스로 바른 지혜로써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동시에 현대의 정보과학기술이나 지식 매체가 주는 편리함 또한 자신이 올바른 잣대를 갖고 주도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이 주인공인 삶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판단의 기준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길 기원한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해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서울에 있을 뻔한 석굴암, 상상할 수 있나

성보유랑 聖寶流浪

① 불교문화유산 수난사의 시작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917년 간행된 〈조선고적도보〉에 게재된 석굴암 유리건판 사진(사진 왼쪽)과 이를 모티프로 구성된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미술관 중앙홀. 본존불로 경주 남산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이, 좌우 협시로 감산사 석불입상 2구가 안치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사진〉

지난해 용산 개관 20주년을 맞았던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는 전국 각지에서 있었을 석탑, 석등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만 꼽아 봐도 우리나라 최초의 팔각 집 모양의 승탑인 염거화상탑(국보)을 비롯해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탑, 원공국사 승묘탑 등 높은 가치의 불교문화유산들이 다수다. 이들 석탑, 승탑들은 본래 자리가 있었을 것이지만 왜, 어떤 이유와 사연으로 박물관 야외 공간을 장엄하고 있을까.

강제병합 전부터 이뤄진 유적 조사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일제의 수집과 반출'에서 기인한다. 수집을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정보들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제는 한반도 전역에서 조사사업을 펼쳤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고적조사사업'이다. 이는 일선동조론 등 일제 식민 지배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자료를 찾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의 유적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수집됐고 일본에서 소비됐다. 하지만 조사 연구와 활용 등에서 조선사회와 조선인은 철저히 배제됐다.

〈한국고고학자가 다시 쓰는 '조선고적조사보고'〉(정인성 著·한국국외문화유산연구원刊)에 따르면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초기에는 도굴에 가까운 거친 발굴과 부실 보고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방법을 정비해 일정 수준의 학술정보를 담보한 보고서를 생산해 냈다. 그 과정에서 유적과 유구, 유물에 대한 기록과 도면 작성, 사진 촬영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조선고적도보〉, 〈조선고적특별보고〉, 〈고적조사보고〉 등의 출판물이 간행됐다.

정인성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조사를 통한 성과물들은 일본 제국의 조선 지배 정책이 선정(善政)임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며 "역대 조선 총독들은 화려하게 제작된 〈조선고적도보〉를 관저에 비치하고 귀빈 선물용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일본인들의 한반도 고적 조사와 도굴 행위 역사는 강제병합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의 유물과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초기 조사를 행한 사람은 야기 쇼자부로(八木奘三郎)로 그는 1900년 무렵부터 한반도 유적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본격적인 조선고적조사사업은 세키노 다다시(関野貞)의 주도로 이뤄진다. 건축사학자였던 그는 도쿄제국대학의 공식 파견과 한국 탁지부의 촉탁 신분으로 1902년에 한반도로 건너와 고건축과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세키노의 조사는 1909년 재개되는데 이때 합류한 인물이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로, 그는 1920년까지 현장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사진 아카이브에 보이는 사진 중에는 야쓰이가 촬영한 불교문화유산, 고분, 왕릉의 사진들이 상당수다.

1916년에는 조선총독부 산하에 '고적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세키노 이외에도 도리이 류조(鳥居 龍藏),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조사사업을 실시했다.

1930년대 불어 닥친 경제 대공황으로 조선총독부도 긴축 재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고 고적조사사업도 축소됐다. 하지만 기존 조사위원 등은 관변단체인 '조선고적연구회'를 설립해 궁내성의 하사금을 비롯해 귀족과 부호들의 모금을 끌어냈고 이를 통해 조사사업을 해방 직전까지 이어 갔다.

정인성 교수는 "일제강점기 동안의 고적조사사업은 일본 연구자의 주도로 일본사의 재정립이라는 목적 하에 이뤄진 조선 연구였다"면서 "고적조사사업의 검토와 재평가 작업은 식민지 지배정책의 본질을 파악하는 구체적 실천방법"이라고 밝혔다.

日, 1900년대부터 조선 유적 조사
세키노 주도 '조선고적조사' 대표적
조사서 반출 및 경성 이운 이어져
"석굴암, 경성 옮겨라" 실제 추진도
1915년 경복궁 '조선물산공진회'서
석굴암 본존불 본떠 관람실 구성해

조사와 수탈 · 반출을 동시에

일제는 강제병합 이후 조사사업과 수탈, 반출을 동시에 진행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제는 경주를 대표하는 불교문화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을 경성(서울)으로 이운하려고 했다. 이는 1910년 경주군 주임서기로 부임한 기무라 시즈오(本村靜雄)의 회고록 〈조선에서 늙어가며〉(1924)에서 확인된다.

기무라 시즈오는 부임 직후 어느 날 조선총독부로부터 공문을 받는다. 석굴암 전체를 해체해 경성으로 옮기라는 지시였다. 기무라 시즈오는 '유적은 원래 장소에 있어야 역사적 증빙이 되며 총독부의 명령은 이를 무시하는 폭명(暴命)'이라 생각하고 명령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결국 지역의 부정적 여론과 관계 기관들의 입장 차이, 그리고 천문학적인 이운 비용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계획 자체는 무산됐다.

무산되기는 했지만 당시 일제가 정말로 석굴암을 이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전부 해체해 이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에게 석굴암은 '일선동조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석굴암 경성 이운 지시를 내려 보낸 데라우치 마시타케(寺內正毅) 초대 조선총독은 석굴암 이운이 여의치 않자 노선을 변경했다. 1915년 경복궁에서 개최한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이하 공진회)' 미술관 중앙홀에는 석굴암을 모티프로 불교미술 전시실이 구성됐다.

경주 남산 삼릉곡에 있던 약사여래좌상을 가져와 공진회 미술관 중앙홀 중앙 주불로 안치했고 좌우 협시로 감산사 석불입상 2구가 배치됐다. 중앙홀 양측 벽에서는 석굴암 부조상 14체의 등신대 석고모형이 설치됐으며 천장에는 천인상을 그렸다.

아라키 준 동국대 WISE캠퍼스 인문도시사업단 공동연구원(전 경북대 인문학술원 연구원)은 '일제강점기 경주 남산 삼릉계 약사여래좌상 반출경위에 대한 고찰(2020)'에서 데라우치가 석굴암을 모티프로 공진회 미술관 중앙홀을 구성한 것에 대해 "한일병합은 조선이 일본과 뿌리를 같이했던 고대로 회귀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기획이었다. 신라 미술 최고봉인 석굴암을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에 안치하는 것은 그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시각화하는 작업이었다"고 봤다.

이어 "데라우치는 조선왕조 상징인 경복궁을 해체하고 그곳에 석굴암을 고스란히 옮겨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언할 것을 계획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차선책으로 공진회 미술관을 석굴암처럼 꾸민 것"이라면서 "이때 본존불로 안치된 것이 바로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아라키 연구원은 현재 '청와대 미남불'로 잘 알려진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도 공진회 석굴암 본존불 후보로 같은 시기 반출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일제의 불교문화유산 반출은 고적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이며 정책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조선 식민 지배 5년을 기념하는 공진회 미술관 중앙홀 전시 구성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공진회는 끝났지만 박물관은 남았다. 그렇게 성보문화유산들의 유랑(流浪)은 시작됐다.

인도 네팔 성지순례 10일
2월01일 출발~2월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이탈리아 돌로미테 여행 9일
26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돌로미테 코르티나담페초와
오르티세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7월 초는 야생화가 만발한 최고의 힐링코스입니다.
출발일 : 7월02일~7월10일
▶ 동참금 : 800만원

우즈베키스탄 불교성지 순례 7일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와
테르미즈의 불교사원 등 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6월12일(5박7일)
▶ 동참금 : 309만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3월25일 출발~3월29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3월21일 출발~3월26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4월01일 출발~4월10일 도착
6월04일 출발~6월1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간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세계 명상 시대, 한국 명상의 길을 묻다

유엔(UN)이 정한 '세계 명상의 날(World Meditation Day, 12월 21일)'을 기념하고, 명상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통해 인류의 정신적 건강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UN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위원회는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주축으로 종교계와 명상 단체 및 학계 등을 아우르는 연대 조직이다. 한국위원회는 이날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을 통해 구성을 확정 짓고, 앞으로 △기념행사 개최 △한국 명상 포럼 운영 △명상 대중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키로 했다. 참여단체 중 한 곳인 한국명상학회의 김종우 이사장(경희대 한의학정신건강센터장)이 한국위원회 출범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및 기대를 담은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유엔(UN)이 '세계 명상의 날(World Meditation Day, 12월 21일)'을 지정한 지 1주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21일, 'UN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가 서울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유엔(UN)이 '세계 명상의 날(World Meditation Day, 12월 21일)'을 지정한 지 1주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21일, 'UN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상임위원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공식 출범했다.

'세계 명상의 날'은 명상과 그 가치인 마음건강·평화·치유 등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UN 공식 기념일로, 개인의 정신건강 증진은 물론 세계 평화와 갈등 완화, 세대 간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다.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한국위원회 출범식은 불교계가 중심이 되어 종교의 경계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 학문적 접근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준 자리였다. 특히 출범식과 함께 열린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명상의 흐름과 한국 명상의 과제'를 주제로 의학·교육학·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져, 명상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

'명상의 사회적 역할' 가능성 제시

'명상의 과학적 연구 성과와 전망'에서는 명상이 건강과 질병 치유에 있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효과가 있다고 했고, '세계 명상 교육의 흐름과 한국의 과제'에서는 교사의 행복이 학생의 행복을 만든다는 전제 하에 교사의 명상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명상의 세계화, 현재와 미래'에서는 다종교 국가인 한국에서 명상은 영성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수행적 차원을 넘어 지성적·윤리적 수행이 함께해야 함을 역설했다. 국회와 정부 관계까지 참석한 이날 행사는 명상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보여 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 명상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 또한 분명히 드러냈다. 명상의 과학적 연구와 교육적 성과가 이미 충분히 축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성과가 한국 사회의 의료·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이른바 '명상 선진국'의 사례에 집중돼 있으며, '명상 종주국'을 자부해 온 한국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명상 연구 성과가 국내선 제한적 활용
효과 신뢰 위해 지도자 역량 담보돼야

의료 현장서 환자 눈높이 맞춤 어려워
교육서도 성적 상승 위한 도구로 전락

고통 원인 알고 자유로워지는 본 목적
의료·교육·일상 분야서 놓치지 않아야

명상 연구 사례, 국내 적용 어려워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는 연구들은 대개 'MBSR(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을 3시간씩 8주간 시행한 후의 효과'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국내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명상 사례 역시, 명상을 '수업 전 5분 호흡' 정도로 인식하는 우리 교육 현실과는 큰 간극이 있다. 결국 '세계의 명상'은 있지만 '한국의 명상'은 뚜렷한 모습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명상은 여전히 특정 집단의 수련이거나, 일상에서 단편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명상의 과학화와 대중화는 분명 필요한 과정이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명상이 '힐링 산업'과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명상 만능주의'는 명상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과제는 의료와 교육 현장에서 명상 지도자의 역량이 충분히 담보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명상'에 대한 사회적 함의도 제각각

한국 사회에서 명상에 대한 사회적 함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5분짜리 프로그램부터 수년간의 수행 과정까지가 '명상'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혼재돼 있고, 각 단체들은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명상을 하나의 치료적 방법으로 제시할 때조차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 현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명상은 집중력을 높여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비법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서구의 명상이 '마음챙김(Mindfulness)'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명상은 아직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특정 목적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명상 지도자의 역할은 명상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명상이 한국 사회에서 올바르게 자리 잡고, 그 효과가 사회적으로 신뢰받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량이 담보되어야 한다.

'명상의 본래 목적' 구현되고 있나

또 다른 고민은 과연 명상이 그 본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의료·교육 현장에서 명상은 소비자의 요구로 변형된 측면이 있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는 명상으로 고통을 줄일 수 있길 원하고, 이에 대해 치료자는 이완을 목적으로 명상을 실행한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은 명상이 학업에 도움이 되길 원하고, 이에 대해 교사는 집중을 목적으로 명상을 지도한다. 목적이 명료하기에 지도는 단순하다. 환자나 학생 역시 명상을 쉽게 학습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명상의 근본적 지향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다.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의 본래 목적은 휴식이나 심리적 안정에 머물지 않는다. 고통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는 이제 막 명상을 접하는 이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경지로 여겨질 수 있지만, 명상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임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의료와 교육, 일상에서 명상을 활용하더라도 수행적인 면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세계적 명상 흐름 속에서 한국이 명상의 튼튼한 기초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명상 지도자들이 동시에 '명상 수행자'라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제각기 흩어져 있는 명상 단체와 학계·종교계를 아우른 'UN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가 한국 명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명상인의 역량을 함께 키워가는 열린 장(場)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김종우
한국명상학회 이사장
(경희대 한의학정신건강센터장)

UN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

■ **공동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상임위원장), 이경열 (원불교 교무), 윤종모(대한성공회 주교),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조승래(국회의원, 국회마음챙김포럼 대표), 이강욱(대한명상의학회 회장), 육영숙(한국명상학회 회장)

■ **자문위원**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육관응(원불교 교무), 주호영(국회부의장), 이헌승(국회정각회 회장), 김영배(국회의원), 김종민(국회의원),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이기흥(전 대한체육회 회장), 김상인(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정재근(한국유교문화진흥원 원장), 함영준(마음건강 길 대표), 김정호(덕성여대 명예교수, 전 한국심리학회장), 박성식(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교수) 외 다수

■ **부위원장**
미산 스님(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 금강 스님(조계종 선명상위원장, 집행위원장), 김주환(내면소통연구소 대표), 신규탁(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전현수(신경정신과 원장), 정원주(대우건설 회장), 심광섭(감리교신학대학교 은퇴교수), 성해영(서울대학교 교수), 정도 스님(동국대학교 교수), 법해 스님(진관사 주지), 노지향(행복공장 원장), 고원국(원불교 교무), 천우정(국회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채정호(카톨릭의대 교수), 주석 스님(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외 다수

■ **집행위원**
혜주 스님(동국대 WISE 아동인성교육연구소 소장), 조덕상(원불교 교무), 박대성(원불교 교무), 현희련(정토회 법사), 신진욱(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박희승(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김병전(하루명상 대표), 안희영(한국MBSR 연구소장), 김재성(능인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민지(마인드디자인 대표), 최선재(재단법인 지관 실장), 박규리(동국대학교 교수), 송영미(한국명상학회 총무위원장), 전진용(대한명상의학회 총무이사)

조계종 고문변호사로서
20년의 노하우!
창건주 승계, 유언 소송, 토지분쟁 등
사찰분쟁의 해박한 지식과
소송 경험을 겸비한
불교계 대표 변호사
김봉석!!!
정률 법무법인 02)2183-5500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62호 | 15 | 전면광고

만약 법을 듣기를 좋아하여
싫증을 내지 않으면
불가사의한 법을 깨닫게 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포교원 건물 급매
- 대지 : 200평
- 4층 포교원, 5개 층, 산 및 근린
- 생활시설, 현6000/700만 수익
- 시세 : 70억 매가 : 45억
- 위치 : 경북 대구시 사찰
- 대지 : 100평
- 법당 : 70평, 요사:70평
- 시내, 주차 10대 가능
- 매가 : 11억

주차 가, 매수 완료 시 수익1000~1300만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 1000, 월세 11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4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승학산 등산로 입구
- 1층 공양 생활관, 2층 법당과 연결된 스님방과 화장실 부엌이 있음
- 5불 · 천불불사 · 후불금탱화 · 지장신장탱화 · 십장생조각상단 · 큰법당 종
- 골목 안에 주차장 가까운 관음사 환희요양원과 연결된 융통성있는 주차공간있음
- 토지 140㎡, 건물 146.62㎡ 1층 73.31㎡, 2층 73.31㎡
- 매매 : 2억5천만원

010-9811-4877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북단양군 매포읍 평동10나길9-6
- 단독주택 / 약30평
- 방3, 주방, 거실, 욕실, 다용도실
- 임대(매매전까지 평생거주)
- 보증금 : 3,000,000원
- 월 세 : 300,000원
- 가 액 : 75,000,000원

010-8567-3667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2억 7000만원(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평창 토굴
- 읍에서 4km 떨어진 곳
- 총 726평 중에서 대지 170평
- 건물 3동 본체, 작은 황토방, 농막
- 가액: 3억 5천

010-3671-3776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사찰 앞 50평) 총 710평 그외 사찰에서 사용가능한 땅 500평
- 건물 : 슬라브 3동, 향토방 2동 해우소(화장실) 1동 (선물은 모두 무 건물입니다)
- 금액 : 5억원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사 찰 안 내

- 장소 : 여주시 점동면 산사
- 대지 : 703평
- 대웅전, 진신사리 3층석탑,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종무소
- 상수도, 지하수, 전기 (태양광 포함 13K)
- 양도가액 : 6억원

010-5481-2560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구촌 생명살림 공동 캠페인 共生

세계는 한 꽃송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세요!!!

어른들의 분쟁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깨끗한 물 한 잔, 마음 놓고 뛰어놀 운동장, 그리고 내일의 꿈을 적어 내려갈 공책 한 권이 이 아이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총성 대신 노래가 퍼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자비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로터스월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소중한 후원금은
피난민과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이렇게 사용됩니다.

긴급 구호
피난민 생필품, 영양식, 의료품 지원

교육 지원
파손된 학교 보수 및 교복, 가방, 학용품

후원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현지방문 2026년 3월

**아이들이 다시
연필을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더해주세요!**

후원 동참 문의
02)2004-8214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62호 | 16 | 전면광고

마음을 잘 절제하고 게으름 없이 노력하며
주의 깊은 마음 관찰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 지혜로운 이는 홍수로도
휩쓸리지 않는 섬을 쌓은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천도재·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지리산 암힐링센터
동업 하실 분
관심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자연치유대체요법
010-4474-8418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손도사성공론 꼭 읽어봐주세요 책
010-5105-5000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수강생 모집
명리. 육효
영가 찾는 법
• 내 용:기초부터 실전완성(4개월)
• 수강료:1개월 무료, 월 15만
• 장 소:서울시 관악구 중앙길7 (서울대입구역 6번출구)
백암역리원 010-9150-2284

公益文學才團 無料奬學(모바일) 大學院(주, 핸드폰)
① 사주학 세미나 역학 등 20여 과목 이러시나 무료이수 3월까지 접수
② 사암 승려 등록 (윤동 명망 교수초빙)
100여권 저서 ← 민족종합 무료 대학원 설립
(…) 동료 동학 사무총장 초빙 요양사 자격증 수여
公益法人 大韓佛教 國際 民佛宗 宗主 大
Daum NAVER 역학대통령 Cafe.daum.net/yokhak
E-mail. b4684@daum.net (02)907-5858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사찰 및 재단법인 추모공원
대표 및 주지 하실분찾습니다
땅 만평 정도, 관광사찰
납골 현 600기정도
공양주 구합니다
010-2078-9595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NEW 신상품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비바미 어싱(접지)
방한 부츠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봉황은 아침 햇살에 울고, 선학은 매화 속에 깃들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①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의 봉황도와 선학도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 동쪽 벽면의 봉황도.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 서쪽 벽면의 선학도.

영산암 사찰벽화는 민화풍의 명작
응진전 단청벽화는 1886년에 조성
창덕궁 대조전 벽화와 같은 조형 원리
봉황도와 선학도의 대위법적인 구도

동쪽 벽면–봉황–아침 태양–청색 중심
서쪽 벽면–선학–저녁 보름달–흰색 중심

사방 면에 툇마루가 있는 고택 닮은 불전

봉정사 영산암은 고택 느낌이 강하다.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정면에 이층 누각 우화루가 버티고 있고 법당과 요사채들이 ㅁ자 일곽을 이룬다. 이런 건축 형식은 안동, 영주, 봉화, 예천 등의 경북 북부 지역의 고택이나 재사 건축에서 보편 양식으로 나타난다. 중앙에 마당을 두고 사랑채, 안채, 부속 건물 등이 사면을 폐쇄형으로 감싼 형태다. 비바람을 막고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데 유용하다. 남녀유별, 장유유서, 그리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맞이하는 봉제사 접빈객 등 유교적 사회질서와도 긴밀하다. 건축도 사회관계의 산물로서 시대 철학과 사회 관념을 필연적으로 반영한다. 안동 지역에서 ㅁ자형 건축의 집중과 보편성은 조선 성리학적 유교의식이 특별히 강한 지역 특성과 밀접할 것이다. 독특한 영산암 건축 형식도 유교의식이 특별한 지역 특성 속에 꽃피운 불교 건축으로 이해하면 금방 수긍된다.

영산암 건축에서 또 하나의 인상적인 대목은 ㅁ자형을 이루는 네 방위의 건축들이 저마다 툇마루를 갖추고 있는 장면이다. 툇마루라는 건축 장치는 휴식과 자유로움의 이미지와 겹친다. 격식 있는 의례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불전 건축에서 툇마루는 뜻밖의 장면이다. 그것은 궁궐 정전 건축에 툇마루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영산암에서 툇마루는 물 흐르듯 수평으로 이어지거나 툇아 흐른다. 어떤 곳에는 하류처럼 넓게, 어떤 곳은 상류처럼 좁게 굽어 돈다. 툇마루의 흐름에는 장단이 있고, 고저가 있어 리듬감이 살아 있다. 높낮이 차이로 흐름이 끊어질 듯한 모서리 부분은 푸르른 소나무가 자라는 바위 뒤로 좁은 계단 길을 내서 공간의 유기적 일체감을 절묘하게 살려 내고 있다. 툇마루는 공간의 푸근함을 엮어 낸다. 누각 마루에 넓게 시설한 대청과 길게 연결돼 있는 툇마루 장치가 연출하는 심리적 위로가 융숭하다. 그래서일까? 영산암은 아늑한 고택에 들어선 느낌을 준다. 종교건축이 갖기 쉬운 권위나 위압감이라곤 찾아보기 어렵다. 공간과 건축이 대단히 인간적이고 소박하다. 주름진 아버지, 어머니의 숨결이 흐르는 고향집 같다. 종교건축에서 36.5도의 사람 체온이 느껴진다.

영산암의 중심 불전은 응진전이다. 응진전은 성자가 된 사람의 아들, 나한들을 모신 공간이다. 인간의 희로애락이 배어난다. 응진전의 장엄에서 종교 교의를 강조한 교조주의 소재가 아닌, 수복강녕을 발원하는 인간적인 소재들의 채택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인지도 모른다. 장엄 소재들은 두루 민화풍이다. '까치 호랑이', 방아 찧는 옥토끼, 어변성룡도 등 다채롭다. 종교 장엄에 세속의 바람과 해학을 담은 민화 소재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벽화 장엄에서 사람의 체취가 묻어난다.

응진전 벽화들은 내외부 포벽 벽화들을 합쳐 40여 점에 이른다. 내부에 30점, 외부에 10여 점이 분포한다. 불교회화와 민화, 도교적 도상들이 뒤섞여 있다.

벽화 제작연도는 동쪽 충량에 남아 있는 묵서로 확인된다. '병술청명(丙戌淸明) 단확(丹雘) 광서십이년(光緖十二年)'의 묵서 기록이 그것이다. 광서 12년은 청나라 연호로서 병술년 1886년에 해당한다. 청명절은 4월 5일경, 오늘날로 치면 식목일이다. '단확'은 '단청'과 같은 의미의 용어다. 즉, 1886년 양력 4월에 벽화 등을 그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응진전 벽화가 140년 된 성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동쪽 벽에 봉황도, 서쪽벽에 선학도

응진전에서 가장 뛰어난 벽화는 동서 벽면을 장식한 봉황도와 선학도다. 내용과 형식, 색채, 구도 등에서 탁월한 사찰벽화의 한 면모를 보여 준다. 붓질이 대단히 정교하고 매끄럽다. 그림 대상에 대한 안목과 이해, 통찰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완전히 간파한 후 형상화한 '격물치지(格物致知)', 또는 '응물상형(應物象形)'의 실증적 태도가 벽화에서 묻어난다.

벽화는 목적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설계 속에 배치됐다. 시간, 방위, 색채 운용을 동양철학의 정수라고 부르는 오행체계에 맞췄다. 예술의 철학화, 철학의 예술화가 이뤄졌다.

벽화 속에 좌청룡 우백호의 방위 질서 규범이 드러난다.

동쪽에 봉황, 서쪽에 선학을 배치하는 구도는 문법의 규범성처럼 일종의 조형 원리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봉정사 서북쪽으로 400m 쯤 떨어져 있는 지조암 칠성전에서도 동일한 구도가 나타난다. 칠성전 벽화는 응진전 벽화를 조성한 1886년의 4년 후인 1890년에 그렸는데 화풍을 보면 동일한 화원이 그렸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응진전과 칠성전의 두 봉황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그 봉황이 그 봉황으로 판박이다. 이렇게 색채를 통한 시간 공간을 해석하고 배치하는 고유한 단청 장엄 원리는 비교적 법식이 엄격히 지켜진 궁중벽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20년에 제작한 창덕궁 대조전 벽화(비단 바탕에 그린 견본채색)가 그런 사례다.

대조전 동쪽 벽면은 오일영, 이용우가 그린 5.7m에 이르는 긴 봉황도로 장식했다. 봉황도 소재도 영산암 벽화와 같다. 봉황, 오동나무와 대나무, 청색 바위, 아침의 붉은 태양 등 소재와 모티프가 동일하다. 봉황도엔 왜 오동나무와 대나무가 등장하는가? 〈장자〉 외편 제17의 6장에 그 대목이 나온다.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머물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도 않으며 물맛이 단 예천 샘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 봉황도 속 오동나무와 대나무는 봉황의 습성을 조형으로 대변한다.

그에 짝하는 대조전 서쪽 벽면은 '왕의 어진을 그린 최후의 화원'으로 불린 김은호가 그린 5.7m 대작 송학도를 영산암 응진전과 같은 원리로 배치했다. 이 역시 소재가 같다. 정수리가 붉은 선학, 흰색의 보름달, 노송, 불로초 등으로 한결같다. 궁중벽화에서도 동-봉황, 서-선학을 배치하는 규범이 똑같이 나타난다.

응진전 벽화에서 봉황도와 선학도는 대위법적인 양상을 보인다. 다른 두 개의 화성으로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 듯이 다른 분위기의 두 화면으로 길상과 태평천하의 이상향을 추구한다. 봉황도가 남성적이고 힘차다면 선학도는 여성적이고 부드럽다. 봉황도가 냉철하고 단순하다면 선학도는 따스하고 화려하다. 오동나무가 수직적이고 직선적이라면 매화나무는 수평적이고 곡선적이다. 봉황의 눈이 직선으로 예리하다면 선학의 눈은 둥글고 부드럽다. 조형 속에 강약강약의 리듬이 조화롭다.

봉명조양의 봉황 출현은 태평성세 예고

봉황도에는 붉은색 화제(畫題)가 적혀 있다. 화제는 '봉명조양(鳳鳴朝陽)'의 사자성어다. 직역하면 아침 햇살에 봉황이 운다는 뜻이다. 고사에서 봉황은 왕에게 거침없이 바른말 하는 충신의 상징이다. 조정에 충신의 직언이 우렁차니 나라가 태평할 수밖에 없다. 봉황의 출현은 곧 태평성세와 국태민안의 징조와 다름없다.

청색 바위 위에 늠름하게 서 있는 저 봉황을 보라. 수직으로 곧추세운 몸에는 힘이 충만하고 예리한 눈빛에는 불굴의 의지가 읽힌다. 살아 있는 생명의 진정한 본성은 눈빛의 묘사 속에 숨김없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선연한 기운이 흐르는 봉황의 눈빛이 길상의 원천이다. 갈색의 사자 갈기 같은 목의 깃털은 바람에 부풀려 있다. 대여섯 가지 다채로운 색으로 층층이 풀어낸 날개는 유체역학을 터득한 정밀한 비행 능력을 짐작하게 한다. 허공에 뻗친 꼬리는 벌써 바람을 가늠하고 있다. 두 봉황은 서로 눈빛으로 교감을 나누고 있다. 봉황이 출현하였으니 곧 천하가 길할 것이다.

선학과 매화, 보름달은 수복강녕의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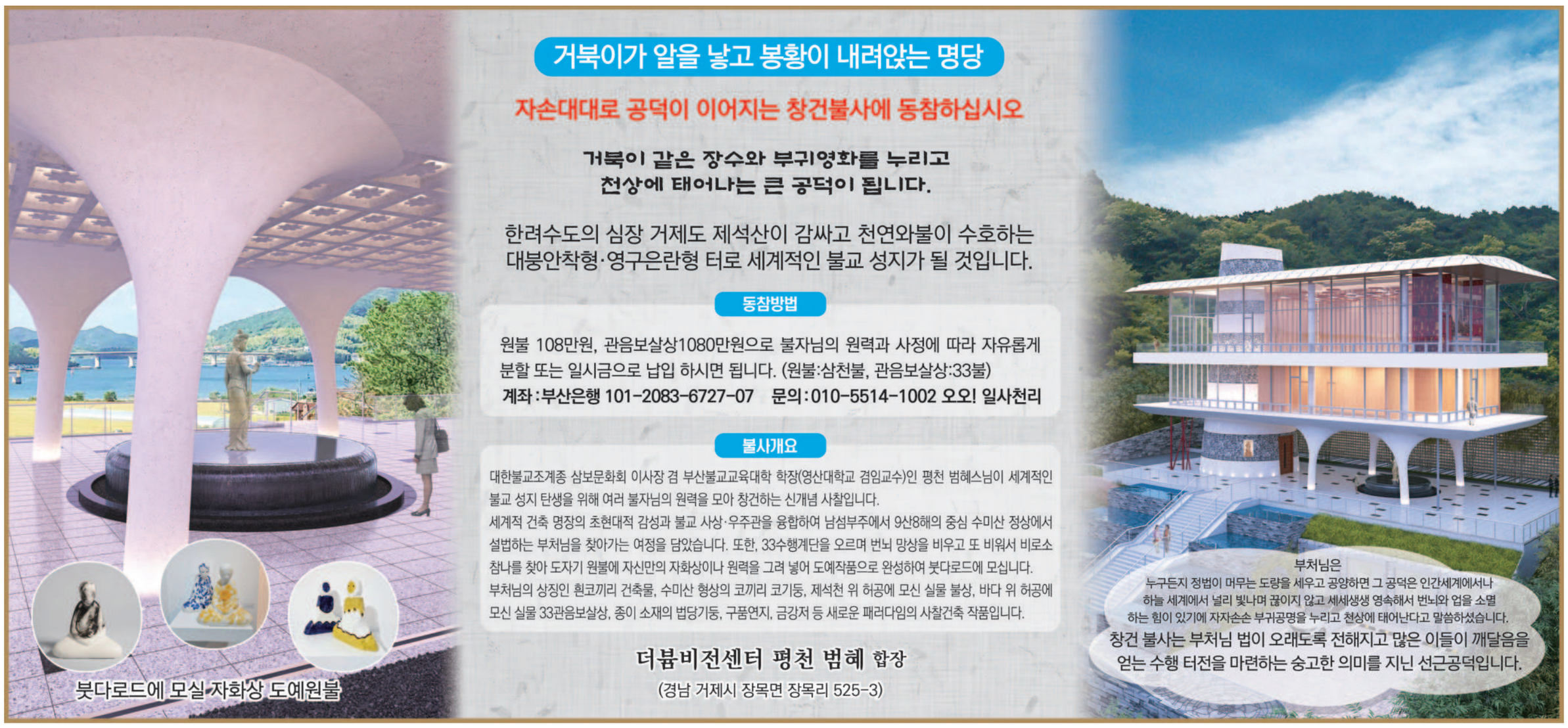
눈길을 돌려 선학도를 보면 마음에 봄기운 가득한 보름달 빛이 번진다. 고매의 등걸 위로 강물이 흐르는 듯 붓질이 일필휘지로 유려히 흐른다. 고매의 등걸에 흐르는 나뭇결이 전류가 흐르는 구리선 같다. 뼈대에 흐르는 기운생동의 생명력이 읽힌다. 늙은 고매이지만 기품 있고, 기세도 왕성하다. 비뚤어지고 바싹 메마른 듯한 검고 늙은 등걸에 청정한 흰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교교한 보름달 빛에 소금을 흩뿌린 형세다. 몸은 늙었어도 꽃을 무성하게 피워 내고 있다. 쇠처럼 단단한 몸에서도 꽃이 핀다. 철골생춘의 경지다.

십장생의 두 선학도 고매처럼 천년을 살았다. 매화는 추위에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고, 오동나무는 천년을 살아도 제 곡조를 간직하며,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 형세는 변함이 없다. 선학과 매화와 보름달이 시간의 경계를 초월하고 있다. 조형에 만수무강의 뜻이 환하다.

양록색 넝쿨은 매화나무 등걸을 칭칭 감아오르며 붉은 꽃망울들을 능수버들처럼 아래로 축축 늘어트렸다. 성글게 드리운 붉은 넝쿨꽃 장막 효과로 신비하고도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한다. 땅엔 마침 불로초가 한껏 부풀어 올랐다. 선학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불로초 한 움큼을 움켜쥐었다. 십장생이 십장생을 취하여 장수의 염원을 농도 진하게 살려낸다. 모든 것이 무르익은 절정의 시간이다. 바야흐로 수복강녕과 태평성세의 시간이 도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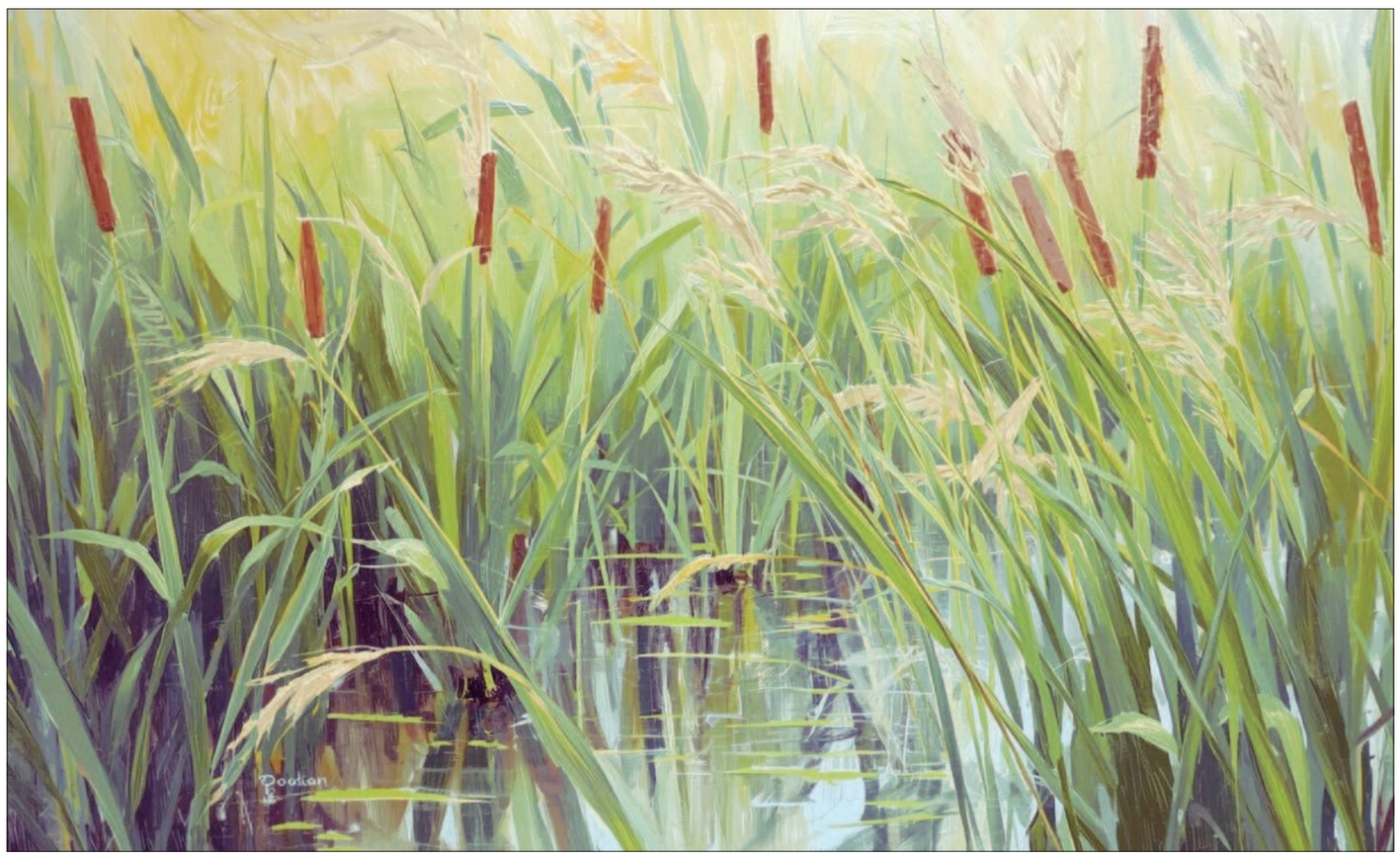
노재학 작가



바람과 달빛 그리고 갈대

시, 불교를 만나다

㉔ 바람인가, 마음인가? : 신경림의 '갈대'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네 뒷산을 산책하다 인상적인 시 한 편을 만났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다가 자주 가다 보니 눈에 띈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만난 시는 다름 아닌 신경림 시인의 '갈대'였다. 2024년 작고했다는 기사가 떠올라 걸음을 멈추고 찬찬히 읽어보았다. 순간 마음에 작은 파동이 일었다. 아마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에서 내 마음이 보였던 것 같다.

인간은 어떤 대상을 보면 이미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다. 예컨대 돼지가 게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고 어리석으면서 탐욕이 많은 사람에 비유하곤 한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돼지 같은 놈'이라고 욕하는 이유다. 이와는 달리 돼지꿈을 꾸고 나면 길조라며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다. 같은 대상인데 전혀 다른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돼지의 시선에서 보면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라 생각할 것 같다.

시인 역시 비유나 상징을 통해 사물의 이미지를 자신만의 언어로 그려 낸다. 그렇다면 이번 주제인 갈대는 어떤 이미지일까? 아무래도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 때문인지 요동치는 사람의 마음에 비유하곤 한다. 흔히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할 때도 이 사물이 등장한다. 신경림 시인 또한 세파에 흔들리며 힘겹게 사는 인간의 모습을 갈대에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흔들리는 원인을 바람으로 상징되는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고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의 울음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진단이다. 시인은 왜 바람이나 달빛이 아니라 '조용한 울음'에서 원인을 찾은 것일까?

신경림은 1956년 〈문학예술〉에 '갈대' 등의 시가 추천돼 등단하게 된다. 흔히 '민중적 서정시인'이라 불리는 작가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정적 언어로 표현했다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농민이나 노동자다. 시를 통해 신경림은 그들의 아픔과 함께했으며, 때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대중들이 그의 시에 많이 공감하는 이유다. '파장(罷場)'이란 시의 첫 부분이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면 /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요즘에는 시골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오일장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시다. 장이 모두 파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마음 맞는 몇몇이 친구 같은 얼굴로 막걸리 한 잔 나누는 모습이 정겹게 다가온다. 특히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는 부분에 많은 이들이 공감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이 대목은 시인이 2009년 출간한 에세이의 제목이기도 하다.

'신경림' 하면 먼저 떠오르는 시가 바로 '농무(農舞)'다. 농부의 삶과 애환을 서정적 언어로 노래하고 있는 시다. 농무란 말 그대로 농부들이 풍물놀이에 맞춰 추는 춤을 가리킨다. 제목만 보면 흥겨울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황폐해진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자조적으로 그리고 있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하면서 농부들의 응어리진 한(恨)을 달래는 것이다. 시인은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랬겠는가. 신명 나지 않지만, 신명 난다는 역설을 통해 현실의 아픔을 달래고 있다.

시집은 〈농무〉를 비롯해 〈가난한 사랑 노래〉, 〈길〉 등 매우 많은 편이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와 같은 동시집도 출간했으며, 산문집으로 〈민요기행〉, 〈시인을 찾아서〉 등이 있다. 만해문학상과 한국문학작가상, 단재문학상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과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동국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고 2024년 지병인 대장암으로 삶을 마쳤다.

신경림, 1956년 '갈대' 등으로 등단
문제 원인 내부서 찾은 통찰력 돋보여
'내 안의 울음', 불교 성찰로 직시 가능

'갈대'는 시인이 1956년 발표한 초기 작품이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통해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노래한 시다. 그리고 그 아픔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깊이 성찰하고 있다. 직접 들어 보기로 하자.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 조용히 울고 있었다. /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 까맣게 몰랐다.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 그는 몰랐다."

갈대를 흔드는 조용한 울음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6조 혜능(慧能)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5조 홍인(弘忍)에게 법의(法衣)를 전수받은 후 15년 동안 은거하다 역사에 극적으로 등장한다. 당시 인종(印宗) 법사가 법성사(法性寺)에서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두 승려가 그 유명한 바람과 깃발 논쟁을 벌이게 된다. 한쪽에서는 깃발이 움직인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바람이 움직인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혜능이 말한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논쟁의 끝을 알리는 사자후였다. 그렇다면 혜능은 왜 바람이나 깃발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다고 했을까? 바람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봤을 텐데 말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한 승려의 마음에는 온통 바람으로 가득 차서 깃발을 담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승려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국 움직인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다.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큰소리로 불러도 안 들릴 때가 있다. 그 소리를 담을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시인 역시 '갈대'에서 바람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갈대가 흔들리는 원인을 바람이 아니라 마음의 울음에서 찾은 것이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는 갈대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다. 너무 작고 조용해서 그로 인해 자신이 흔들린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은 시인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갈대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흔들리고, 부모나 형제 간의 갈등으로 삶이 휘청이기도 한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삶이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때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곤 한다. 흔히 하는 것처럼 "너 때문에 그러잖아"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온다. 시에서는 이를 '바람'이라는 상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밖으로만 향하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갈등이 심한 부부를 예로 들어 보자. 그들은 서로 상대를 탓하지만, 실은 내 안의 상처가 곪아서 생긴 경우도 적지 않다. 극한 상황까지 이른 부부가 해결을 위해 상담을 받아 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갈등의 원인임을 알게 되기도 한다. 그동안 내 안의 트라우마를 모른 채 살아왔을 뿐이다. 처음에는 상처가 너무 힘들어 애써 외면했지만, 저 깊은 무의식에 오랫동안 쌓이면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것이다. 갈대는 오랜 시간 울면서 살아온 우리 모습을 보여 주는 상징이다.

시인이 지적한 것처럼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갈대처럼 흔들리는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불교는 우리의 시선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이키는 반조(返照)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이를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 체계도 다양하다. 예컨대 요즘 유행하는 명상을 하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 다른 이의 도움 없이도 내 안의 울음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외에 염불이나 절 수행 등도 나 자신을 성찰하는 훌륭한 방편이다. 이처럼 내 안의 조용한 울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

알려진 것처럼,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다. 인간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거칠고 험한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은 이유이기도 하다.

사유와 반조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다. 이런 힘이 현실에서 작동하면,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신경림의 시가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우리가 불교나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대행 스님

물이 흘러 가는데 큰 돌이 있다면 그냥 돌아가라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이 지금 직접 당하지 않았고 "내가 살 만한데 뭘 그래? 그까짓 거 주인공이 뭐 말라빠져 죽은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인공이란 자기 몸뚱이와 움죽거리는 거와 생명의 근본과 똑같이 한데 합쳐진 거를, 지금 육(肉) 안에 든 생명들도 다 같이 움죽거리는 거를 가지고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아, 자기가 자기 무시하는 거야 뭐, 마음대로 하라죠, 뭐. 누굴 믿어요, 지금? 허공을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중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겁니까? 무엇을 믿기에 그렇게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자기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길에 어떻게 놀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요다음에 그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럼 소임을 저절로, 개로 소임을,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개 소임밖에 더 있습니까? 그건 저절로입니다. 뭐, 누가 시켜서 '소임을 너 맡아라, 줘라' 이러고 뺏고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자기의 모습 쓰고 나오는 대로 그 소임이 주어지니깐요. 아주 괴짜죠. 우습죠. 염소로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염소의 그 소임을 다 해야죠. 그렇듯이 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죠. 자기 하는 소임은 다 있으니깐요. 인간으로 나온다면 인간의 소임을 다 해야 하고요. 인간들도 천차만별인데 그 소임 소임 따로따로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조금도 우연이 없고 이렇게 잘못 나가는 법도 없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인간의 차원도 바로 이 세상 차원이나 다 같다. 배도 모두 받아다가 크고 작은 걸 나누어 놓는다.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큰 거는 큰 것끼리, 깡통 있는 데는 깡통으로 채워지고 금이 있는 데는 금으로 채워진다. 사람들도 정치인은 정치인들대로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상인들이 정치인들 하는 데에 끼일 리가 없고, 정치인이 상인들한테 끼일 리가 없다. 깡통이 금방에 갈 리가 없고 금이 깡통전에 갈 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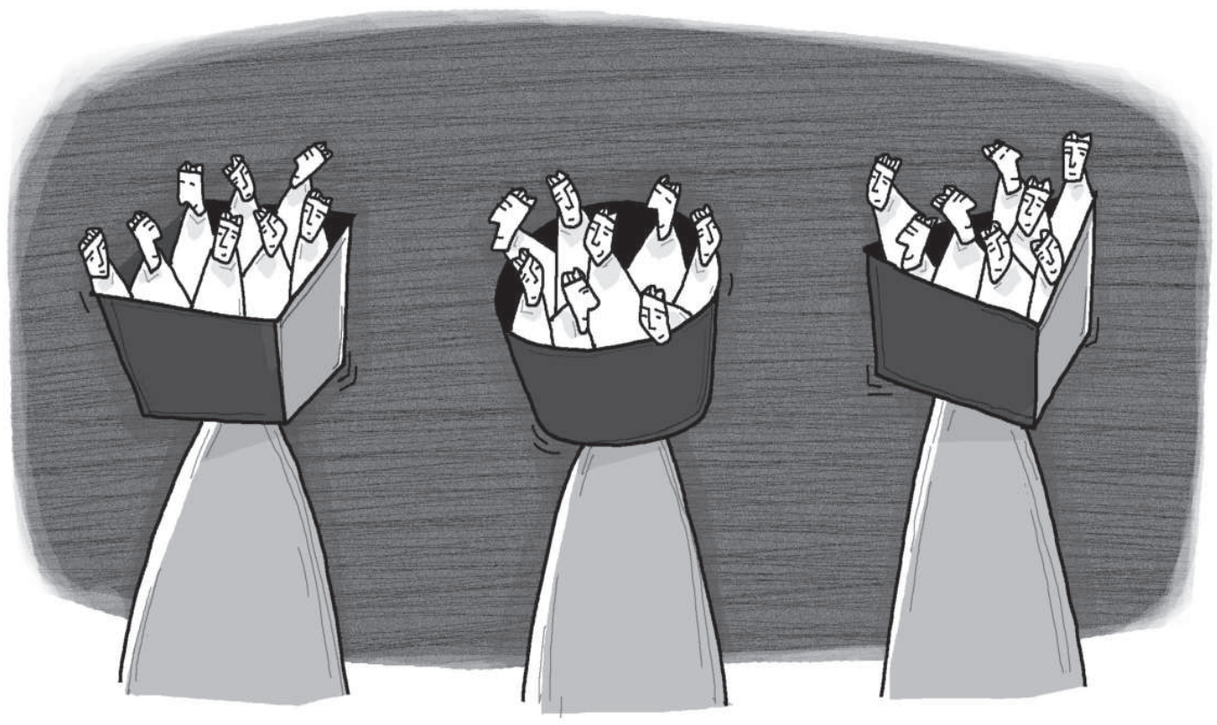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인간의 차원도 역시 그러하니까 우리가 끼리끼리…. 한 가족이 모여서, 만나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끼리끼리니까. 깡통이라면 깡통, 금이라면 금, 이렇게 끼리끼리 만난 사람들이니까 어떠한 한 가족 속에서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모두가 각자 자기 탓으로 돌려야 한다. 그건 왜? 그 상대방 탓만 아니니깐 말입니다. 왜냐? 그 깡통과 그 깡통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니까. 이쪽이 어떠한 문제가 나면 이쪽도 속이 상하니까 마찬가지로 죄는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서 속 썩이고 살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몽땅 없애려면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아니 되고 자기의 그 녹음된 거를 지워 버리는 수밖에는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틀리다면 틀리다고 하셔야 내가 또 강력히 나가죠. 허허허.

지금 의학적으로나, 다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모두 과학적으로 되는 이치와 상대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인간의 자동적인 컴퓨터와 자동적으로 움죽거리게 하는 그런 누진에 관한 건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요, 누구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우주를 갖다가 요만한 면경 알로다가 다 갖다가 볼 수 있고, 또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거짓말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만하게 아주 좁쌀 알갱이만 한, 좁쌀 알갱이도 없는데 표현을 하려니까 좁쌀 알갱이라고 합니다. 좁쌀 알갱이만 한 면경이 이 대뇌에 들어 있어서 누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팎, 즉 과거, 현재, 미래 삼세가 다 거기 흠뻑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두가 녹음이 돼서 스크린처럼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스크린처럼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 무르팍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움죽거리게 하듯 그것도 그렇게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뭐를 하려면 한 찰나에 그냥 다, 여러분도 아마 이 공부 하신 분은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게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빨라서, 너무 빨라서 모르는 겁니다. 하하하.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어린애가 들어서기만 하면 낙태가 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낙태가 되려고 피가 흐르고 있다 한다면 그럴 때, 그 순간 들었을 때 벌써 순간 거기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렇게 너무 빠르니깐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나! 그게 그렇게 됐어?" 그렇게 우연히 된 걸로도 알고 또 때로는 그렇게 된 줄 알아도 모르고 "아유." 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야휴, 참 부처님 원력이 이렇게 참 광대해!' 하고 좋고 정말 기쁘지만 그거를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 이 전력이 이 순간 가설이 돼 있으니까 순간 버튼을 누를 때에 불은 반짝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을 여러분이 봅니까? 보지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전력이 들어와서 불이 들어온다는 건 알고 있죠? 하하하. 그런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믿으세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거를 까뒤집어서 가르치려니, 이걸 이해를 해야 믿겠기 때문에 이거를 까뒤집어서 일러 드리려니…. 지금 현대 사람들이 때로는 이걸 물질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몸도 물질이지만 그것도 뼈를 다른 걸로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무릎도 끼고 발목도 끼고, 팔꿈치도 끼고 그렇게들 만들어 놨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끼고 또 빼고, 또 끼고 빼고 이러다 보면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자체 내에서 그것을 그렇지 않도록 굴리세요. 마음, 이 마음으로써 모든 게 절대적으로 응용이 되니깐요. 이 몸도 그렇지만 모든 게 다 그래요. 용도에 따라서 바깥에서 오는 거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모든 문제들, 모든 게 이게 절대적으로 응용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여기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내 꼴이 이게 뭐라고 (장삼 자락을 잡아 보이시고) 이걸 보고 절을 하겠습니까? 생각들 해 보시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나 이거를 보지 않고 자기가 위급하니깐 그냥 땅바닥이고 어디고 아랑곳없이 그냥 절을 한 게 나한테 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패처럼 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부처님한테 한 거죠. 이게 부처 뒤에 숨어 있는 그 부처님 거기에까지 통신이 되게끔 했단 얘깁니다.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발전이 없다면 부처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 19면에서 계속

안하무인으로 뭐, 땅바닥이든지 진 땅이든지 비가 오든지, 그거 아랑곳할 것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네들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볼 때 '저 스님한테 절을 해서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해요. 왜냐? 내 위패가 없다면, 하하, 나라는 위패가 없다면 부처님하고 통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앞잡이로서, 하하하, 심부름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몸뚱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하니까 직통 부처님께서, 뒤에 숨어 있는 부처님은 바로 그거를 아시고서 '얘, 정말 가긍하구나. 정말 지극하구나.' 뭐, 지극하게 빌고 기도를 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참 그 도리를 진정코 믿고 알고 있구나.' 이래서 그저 나름대로 소신껏 그렇게 자기 마음먹고 한 대로 돼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때 그렇게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몸을 그렇게 굴리지 않고도 진정코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됩니까? 이 마음의 발전이라는 것이 없으면 첨단을 넘을 수 있는 부처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를 앉아서 다 본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니라. 그리고 다 할 줄 안다 하더라도, 이걸 다 안다 하더라도, 타심통으로 다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다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다 듣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숙명통, 즉 말하자면 어디서 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도 도가 아니니라. 그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딱 내가 쥐고서 이 누진으로 벗어나야만이 그것이 바로 도니라."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보이고, 무슨 무슨 부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랬다고, 보이고 뭐, 이런다고 해서 아이고, 고게 아쉬워서 그냥 야단들을 하고 그게 도인 줄 알고 야단들을 하는데, 천만에! 그거는 감사하게 놓기만 하면 돼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는구나.' 하고 거기다 놓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여주는 것도 공부니까. 들리게 하는 것도 공부고 모두가 공부일 뿐이지, 수행하는 과정일 뿐이지 그게 도는 아니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열적으로 자기를 믿으라고 그런다고 그냥 오만 신경을 다 써 가지곤 그냥 그렇게 찾는다고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앉아 가지곤 온통 야단을 하지 마시고요. 또 책을 그냥 몇 시간씩 보고 그냥 온통 정신을 다 어지럽게 하지 마시고요. 편리하게 내가 보고 싶을 때에 보고, 보기 싫을 때 놓고, 또 시간이 나서 앉고 싶을 때 앉고 앉기 싫으면 그냥 일어나고, 생활 자체가 그대로, 행주좌와 그대로 그게 참선이에요.

행선이라든가 와선이라든가 입선이라든가 좌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그대로. 이름이 각각 있다고 해서 각각 이렇게 해야만 공부한다 이런 게 아니고, 모두가 사람은 앉았다 서고 섰다 앉고 하는 것이 그대로, 행주좌와 그대로가 참선이다 이겁니다. 한 뿌리가 한 나무를, 헤아릴 수 없는 잎새가 달린 한 나무를 살리고 있듯이. 하여튼 궁금한 분이 있으면은 질문하세요.

질문자1(남) 제가 드릴 질문은 딴 것이 아니고 우리 신도들 대부분이 보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사 신도하고 보살 신도가 한 가정에서 서로 살림살이를 해 가면서, 보살님은 열심히 한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사님이 오히려 그 공부에 방해가 되고 또 이 한마음 공부로 인해서 가정에서 문제까지 생기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항상 이 전깃줄이 서로 가설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선 부단히 가설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거부를 하는 이런 기막힌 현실을 보고 이걸 좀 큰스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다스리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큰스님 그걸요, 그러니깐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순리적으로, 어떠한 막는 개체가 있을 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데에 큰 돌이 있어서 곧장 갈 수가 없다 할 땐 돌아가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아내가 선원에 나오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런다면 나오지 않고도 생활이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니까, 그대로 그렇게 놓고 공부하시면서 '그 사람도 역시 나와 같이 불이 들어오게끔, 마음이 밝아지게끔, 지혜가 생기게끔 하는 것도 바로 너뿐이야.' 하고 그것도 놓아 가면서 부드럽게 해 주면서 부드러운 행동을 해 주면서 그 상대방 탓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쪽 사람이 처음에 볼 땐 자기 같이 다니지 않고, 그러니깐 마음에 안도감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어딘가가 앞서 그런 거를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자연적으로 한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야지 "왜 못 나가게 하느냐? 왜 이렇게 좋은 공부를 당신은 안 하고 뭐, 어쩌니저쩌니…."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남편이든지 부모든지 똑같습니다.

질문자1(남) 그래서 제가 같이 열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보니깐 열차 칸에서 서로 둘이 싸우고 또 전철 타고 오면서 전철 칸에서 또 싸우더라고요. 그래 화장실에 가니까 남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로 가니까 그때는 안 싸우는데….

큰스님 아니, 같이 나오시기는 하는데요?

질문자1(남) 오늘 제가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저, 일어나 보십시오.

큰스님 하하하. 난 아주 안 나오시면서 그런다고. 아이, 나오시면서 그런 거는, 하하하. 지금 안 믿어 봤자야. 안 믿어 봤자 자기를 무시하는 거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왜, 여러분이 다 자신이 뭐 어쩌고 어쩌고 그러죠? '자신'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알려 드리기 쉽게 말을 하자면 '자'는 지금 현재의 자기고, '신'은 자기의 그 원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불심이, 그 불(佛)이 둘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자신!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자가 어딨습니까? 자기 신이 자기 '부(父)'이기도 합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에 살 때 살던 자기,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합니까?

질문자2(남) 큰스님 법문 중에 선도 놓고 악도 놓으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 공부를 만나기 전에는 남이 선은 뭐고 악이 뭐냐고 물어 온다면 선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상대와 내가 동시에 좋은 거고 또 내가 괴롭고 손해가 보더라도 상대가 좋은 거면 그걸 선이라고 보고, 악은 그와 반대로 상대와 내가 나쁘고 내가 좋고 이득이 되더라도 상대가 나쁘면 그건 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별심이 없어졌어요. 지금 누가 나보고 당신은 선이 뭐고 악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 선도 놓고 악도 놓으라고 그랬는데 뭘 놓으라고 그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아주 간략하게 말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믿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응용해서 얘기하죠. "자(子)는 주(主)에게 모든 거를 놔라" 이런 겁니다. 주님은 바로 주처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주님이 있지 주님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불가에서 불성이다 부처다 하는 것과 똑같애. 이게 그래서 평소에 말을 할 때 중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지 않고 이 세상에 출현을 안 했더라면 무효지, '주'가 어딨는지 부처님이 어딨는지도 모를 게야. 그렇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세상도 알았고 상대성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산시켜서 이끌어 가는 나의 선장을 먼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이야.

그래서 생명의 근본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 내는 것과 몸이 움죽거리는 것과, 모두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게끔 움죽거리니까 그냥 전체를 한데 묶어서 주인공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기한테 있는 거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부터 알아야 이 우주의 근본 섭리가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알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대 성인들이 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이랬잖아.

그러니 바로 '자'는 '신'에게 놔라. '자신'이라고 한다면은 '자는 신에게 모든 거를 맡기고 믿고 종으로 알아라, 자기 몸뚱이는 종으로 알아라' 이런 거야. 왜냐? 지금 이치를 생각을 한대도 몸뚱이 속에 많은 중생들, 생명들이 들어 있는데 이 물 한 컵을 당신이 목이 마르다 할 때 마신다 해도 당신이 먹는 게 아니야. 당신이 달라는 게 아니야, 또. 당신 속에 있는 생명들이 바로 그 물을 달라고, 목마르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채고선 바로 물을 먹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더불어 먹고 사는 인생이지 제각기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야. 같이 더불어 주(主)란 얘기야. 그러니까 바로 자는 주에게 놔야지 않어! 맡겨 놔야지.

질문자2(남) 고맙습니다. 물론 큰스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 누가 이렇게 잘하고 잘못되고 이렇게 사량심으로 판별하는 그런 것이, 물론 선과 악이라는 얘기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별심이 지금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잘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요, 그게 그대로….

큰스님 "다 놔라" 그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기에 불을 켜려면 이쪽 줄과 이쪽 줄을 양면, 이게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라 할지라도 이 양면을 다 한데 붙여 놓으면 (양 주먹을 서로 붙여 보이시고) 한 줄이 돼 버려야 불이 들어올 수 있지? 응.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 놓고 선도 놔라" 그러는 건, 한데 합치면 그냥 한 바다에 구정물과 새 물을 넣어도 그냥 한 바다가 돼 버리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거야. 더러운 물 따로 두드러지고 새 물 따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거야.

내가 미국에 가서도 목사, 신부들과 모두 같이 세미나가 있고 토론을 했을 때도 만장일치로 손뼉을 치더군. 사실이니까, 그게.

> 내가 있기에 세상도 알았고 상대성도 알았고,
>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산시켜서 이끌어 가는
> 나의 선장을 먼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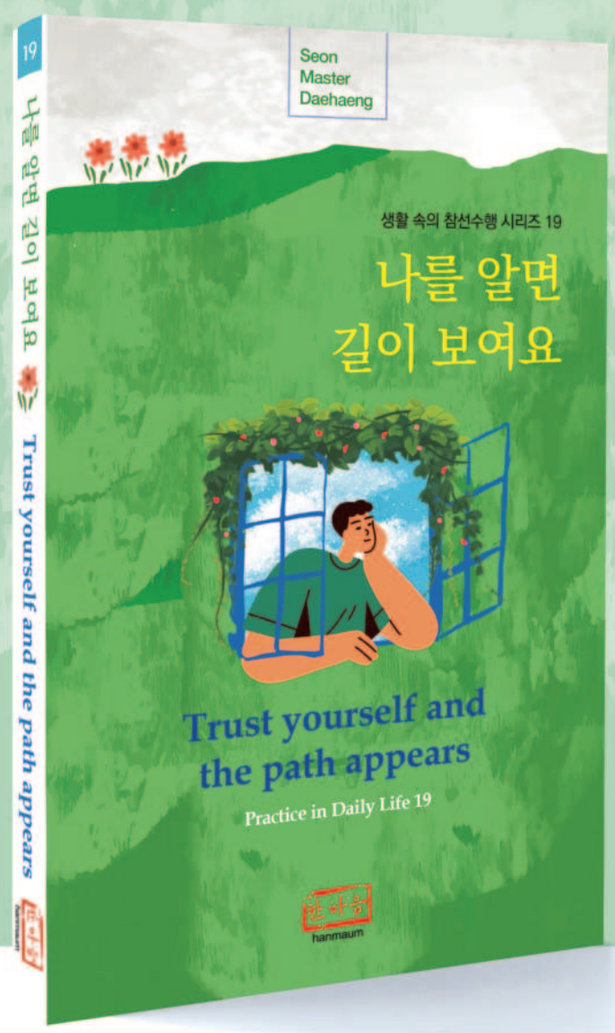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5년 1월 15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① 가야금의 길 끝에서 마음 공부를 만나다

가야금과 禪 만나는 접점서 삶 위로하고파

"가야금 전공자가 왜 선학과(禪学科)에 왔습니까?"

동국대 선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승복을 입은 스님들과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저는 낯선 이방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국악계 동료들은 "갑자기 머리 깎고 스님이 되려는 거냐"며 우려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양쪽 세계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서성이는 듯한 이 질문들은, 역설적이게도 제 정체성을 꿰뚫는 날카롭고도 따뜻한 '화두'가 됐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배움에 중독된 사람'이라 여길 만큼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애썼습니다. 이미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갈증은 여전했습니다. 그 불안을 잠재우려 또 다른 전공의 석사 과정에 덜컥 입학해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서 지식을 쌓을수록 이상하게도 '머리는 채워지는데 마음은 더 텅 비어 가는' 공허함만 커졌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문장 하나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예술을 깊이 파면 철학이 되고, 철학을 깊이 파면 종교가 된다."

경지에 오른 예술가들이 자신의 기예를 넘어 종교적 승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은 제게 막연한 동경이었습니다. 제게 가야금은 악기가 단순히 소리를 내는 도구가 아니라, 철학과 종교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의 '마음'을 간절하게 두드리던 것은 책상 위 이론서가 아닌, 제 '몸'이 기억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니던 대학원을 과감히 그만두고, 지식이 아닌 지혜를, 머리가 아닌 마음을 채우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 선학과 박사 과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야금 연주자는 12줄 명주실의 장력을 맨손으로 이겨 내야 합니다. 손가락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하며, 여린 살이 단단한 굳은살로 바뀌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소리를 얻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긴 악기를 무릎 위에 두고 12현을 고루 통제하기 위해, 악기 앞에 앉을 때마다 척추를 비스듬히 세우고 버티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육체적 통증도 감내하며 한 음 한 음을 뜯는 행위가,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치열한 '수행(修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몸으로 먼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야금 수행'에는 결정적인 덫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평가'였습니다. 가야금은 소리를 내는[有] 행위입니다. 그 소리는 무대 위에서 청중에게, 혹은 심사 위원에게 반드시 점수 매겨지고 평가받습니다. 스승의 엄한 꾸지람이나 "아직 부족하다"는 혹평을 들을 때면, 제 수행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아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가야금은 치열하게 나아가는 '실천'
명상은 실천이 집착 안 되게 '제동'
팽팽한 긴장 속 쉬어 가는 여음 되길

더 무서운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냉혹하게 몰아세우는, 제 안의 '나의 평가'였습니다. 타인의 비판은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내부의 목소리는 잠들기 전까지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낼수록 괴로웠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 저는 선학과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낯선 불교 용어들이 오가는 그 생소한 풍경 속에서 저는 역설적이게도 '아, 이제야 살 것 같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야금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유위(有爲)'의 세계였다면, 명상은 하려는 마음마저 내려놓는 '무위(無爲)'의 세계였습니다.

선(禪) 공부를 통해 저는 비로소 배우게 됐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연주 기술이 아니라, 그 연주를 하려는 마음조차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지관(止觀)'의 수행이었다는 것을요. 명상은 저에게 "더 잘하라"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는 불안과 욕심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야금이 치열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실천'이라면, 명상은 그 실천이 집착과 독선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 주는 '멈춤'이었습니다. 가야금을 버리고 명상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상을 통해 저는 가야금을 더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줄 위에서 팽팽하게 긴장하던 제 마음의 현(絃)을, 명상이라는 조율을 통해 비로소 느슨하고 편안하게 풀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무대, 가정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늘 '더 나은 성과'를 요구받고, 스스로를 평가하며 괴로워합니다. 가야금 줄이 끊어지듯 삶의 계획이 어긋날 때도 있고, 익숙함에 속아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 연재를 통해, 저는 가야금 연주자이자 명상 공부인으로서 '줄 위에서 만난 마음의 풍경'들을 독자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굳은살이 박여야 맑은 소리가 나는 이치, 합주(合奏)에서 타인의 소리를 듣는 경청의 지혜, 그리고 케이팝(K-Pop)이 흐르는 시대에 3분짜리 명상곡을 짓는 MZ 명상가의 고민까지, 가야금과 선(禪)이 만나는 그 접점에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작은 지혜들이 숨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야금의 길 끝에서 만난 것은 결국 난해한 교리나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와 침묵이 둘이 아니듯, 치열한 일상과 고요한 명상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저의 이 작은 기록이, 팽팽한 긴장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여음(餘音)'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야금 명상곡 'Arione(arirang+one)' 바로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㉕ 약사의 하루

약 부작용 보고·법안 의견 제출도

"첫째는 요즘 똥 냄새가 지독하니 유산균, 오늘 아침에도 알레르기로 입술이 좀 부어 있으니 알레르기약. 둘째는 피곤하고 며칠 전 코피를 흘렸으니 철분제랑 비타민K, 그리고 콜라겐과 프리바이오틱스. 셋째는 변비가 생겨서 식이섬유 젤리랑 비타민D, 아침에 호흡 소리가 좋지 않고 기침을 하니 기침약도 함께…."

시곗바늘이 일곱 시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새벽녘의 어스름이 가신 창가에 햇살이 번질 무렵, 세 아이의 영양제를 챙기는 것으로 필자의 하루는 다시 시작된다. 이내 약국집 자제답게 아침부터 두 손 가득 영양제를 들고 쪽쪽 빨아대는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집을 나선다.

약국에 도착하니 문을 열기도 전에 어제 주문한 약들이 상자째 쌓여 약국 입구를 막고 있다. 상자를 약국 안으로 옮기고, 약의 종류를 분류한 후 창고와 매대에 각자의 위치로 진열한다. 진열할 때는 선입선출이 되도록 유효기간을 일일이 확인해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각을 맞춰 줄을 세운다.

'이 약은 보통 6개월 치 나가는 약이니까 유효기간이 5개월 남았으니 반품을 해야겠네.'

약 정리를 하며 유효기간이 임박하거나 애매한 약들은 빼내어 주문처를 확인하고 반품을 한다. 악성 재고, 불용 재고는 약국 경영의 적이자 순환되지 않고 창고에 고여 있는 빗이며 마구니 같은 존재다.

약 정리를 마치고 컴퓨터를 켜니 확인해야 할 약국가 소식들이 뉴스와 카카오톡을 통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는 일은 약가 인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처방 조제되는 약의 가격이 국가에 의해 정해진다. 이 가격은 주기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내려간다. 예를 들면 내가 1000원에 사들인 약을 다음 달부터는 800원으로만 인정해 주는 식이다. 가만히 앉아서 200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해당 약이 사용량이 많은 제품이라면 손해는 수십, 수백만 원까지 커지기도 한다. 그래서 매달 약가 변동 목록을 확인하고 재고 수량을 확인해 정해진 기간 내 반품을 하며 가격이 인하되는 날에 맞춰 다시 주문하는 것이 약사의 일상이다.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를 놓치게 되면 그 손해는 온전히 약국 것이 되기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끔은 약의 보험 적용 기준이 변동되는 일도 생긴다. 얼마 전 치매 증상에 사용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글리아티린'이라는 약이 그런 경우다. '뇌 영양제', '치매 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었는데 2025년 9월부터 치매 환자로 진단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약값의 8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비치매 환자의 경우 한 달 약값이 1일 2~3회 기준으로 1만~1만5천원 정도던 것이 변동 후에는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 정도로 오르게 된 것이다. 이것을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객은 기존에 받던 약의 가격을 약국에서 올려 받는 것이라 오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단골이라 믿어 오던 고객이 이미 지어진 약을 내팽개치고 처방전을 뺏어 다른 약국에 간다고 나가 버린 적도 있었다.(30분 후 다시 돌아와서 다른 약국도 똑같더라며 사과하고 약을 받아 간 건 다행이지만.)

약의 오남용 막기 위한 절차 준수
안전 사용 위한 정책 의견 제시 등
약사 노력, 사회 건강 유지에 한몫

그 외에도 병원에서 새롭게 출시된 약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구매처를 수소문해 약을 주문하고 새로운 약 성분의 기전을 환자들에게 어떻게 쉽게 잘 알아듣게 설명할지 고민해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다.

약사의 직능과 관련해 새롭게 제출되는 법안이 있으면 국민신문고를 확인해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고, 약 관련 부작용을 겪은 사람이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올리는 것 역시 약사가 하는 일이다.

이 밖에도 그날 사용한 수면제, 식욕억제제, 마약류 같은 민감한 약들은 수량을 다시 확인해 사용량을 국가 시스템에 보고한다. 이런 약들은 일 년에 한두 번씩 보건소에서 약의 개수와 시스템에 보고된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러 직접 오기도 하므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그날 나간 약 수량을 확인해 주문을 넣고 나면 약국의 하루가 마무리된다.

보통 약국 일이라고 하면 처방전을 받아 약을 짓고 환자에게 약을 주며 설명을 하고 일반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약을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 약국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알지 못했던 다른 업무가 훨씬 많다.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절차를 지키면서 업무를 하고, 약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의견을 내며, 약을 바르게 복용하는 방법을 고객에게 알아듣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매일 공부를 하는 약사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약국에 가면 따뜻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 보자.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①

이제 텅 빈 교실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다



뽀디봉 초등학교 교사들이 피난처로 제공된 사찰 경내에서 여러 지역에서 피난 온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쟁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이번 무력 충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7일 새벽, 그동안 국경을 따라 새어 나오던 긴장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터져 나온 포성은 마을 사람들의 시간을 단숨에 멈춰 세웠습니다. 뽀디봉 마을 사람들은 경작지와 집을 내버려둔 채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경운기와 오토바이에 이불과 화로 같은 최소한의 살림살이,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몸이 약한 노인들을 태운 채 목적지도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이 뽀디봉 마을은 재가불자 NGO인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 2008년부터 수레꾼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공예학교를 차례로 세우며 16년 넘게 함께해 온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전쟁을 피해 비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 24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했으나 당시에는 닷새 만에 휴전이 이뤄져서 비교적 빠르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쟁이 20일간이나 이어졌고, 태국의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이 약 800㎞에 이르는 긴 전선을 따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기다리던 휴전은 지난달 27일에야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총성이 멎었다고 해서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뽀디봉 학교가 있는 이 지역은 여전히 '전쟁 위험 구역'으로 설정돼 귀환은 조심스럽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재개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현재 마을로 돌아온 주민은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다고 전해 왔습니다. 먼저 돌아온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학교 마당과 교실을 쓸고 닦으면서 텅 빈 교실에 앉아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마음속으로 불러 본다고 합니다.

뽀디봉 마을은 전쟁을 모르고 살아왔던 마을입니다. 마실 물도, 먹을 식량도, 그리고 오랜 시간 전기조차 없던 황무지 땅이었던 곳에서 수레꾼이 물을 파고 나무를 심으며 전기가 들어오는 날까지 힘써 일구어 왔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이곳에 마침내 물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온 후, 조금이나마 살 만한 곳이 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 학교는 문을 닫아야 했고, 이제는 피난 갔던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토록 전쟁은 큰 재앙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전쟁이라는 변수는 우리 감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만, 인생이 본래 예측 불가능한 하나의 '드라마'라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역설적으로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우리는 16년 전부터 지금까지 뽀디봉 마을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새롭게 세울 것을 다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머지않아 돌아올 터이지만,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생겼을지라도 부디 무너지지 않았기를 바라며,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세워진 수레꾼의 뽀디봉 학교 이야기, 그 과거와 현재를 계속해서 이어 가고자 합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① 다시 묻는 대학생 전법

권유하면 따라오지 않는다

대학에서의 전법이 예전처럼 '권유하면 따라오는' 방식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동아리 '가람수호'를 지도하며 먼저 배웠습니다. 초기에 정기 법회를 성실히 이어 갔지만 참석자는 늘 비슷했고, 바깥으로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학생들이 '부담 없이 들어올 문'은 없었던 셈입니다.

전환점은 작은 실패에서 왔습니다. 홍보 문구 하나를 두고도 "종교 권유로 보일까 걱정된다"는 학생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전법이 내용 이전에 '접근 방식'의 문제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전법을 권유와 설명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경험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덕법회에서는 '진격의 거인', '귀멸의 칼날'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를 함께 보고, 책임·연대·희생을 불교 윤리의 언어로 다시 묻는 대화를 열었습니다. "법회는 처음인데 대화는 참여할 수 있었다"는 한 학생의 말은 제게 큰 힌트가 됐습니다. 불교동아리지도 교수님이 주도한 〈반야심경〉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경문을 풀이하게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해석이 '자기 말'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불교가 교리의 전달을 넘어 삶의 언어로 건너오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다만 준비가 부족하면 성찰이 얕아질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권유·설명 대신 학생 주도 이끌고
제도적 신뢰·공동체 관계 함께하면
전법은 강요 아닌 선택으로 작동돼

운영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획이 일부 임원에게 쏠리면 금세 지치고, 답사·행사에는 안전과 예산, 대외 협력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역할·안전·예산을 사전에 문서로 합의하고, 행사가 끝나면 회고를 기록으로 남기게 했습니다. 단기 성과는 느려도 학생 주도의 지속 가능성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이 과정의 토대에는 학교법인과 건학위원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전법과 인재 양성의 도량으로 세우고자 했던 해봉당 자승 스님의 원력, 그리고 그 뜻을 학교 운영 속에서 잇고 있는 이사장 돈관 스님의 원력은 현장에 신뢰의 기반이 됐습니다.

동국대 캠퍼스에서의 경험은 대학생 전법이 개인의 열정이나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전법이 오늘의 대학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신뢰와 공동체적 관계, 그리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실천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134회를 넘어 이어진 지역 미래육성 장학의 후원 사찰 방문과 감사 교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 불자들은 보시와 회향, 관계의 의미를 몸으로 배우며, 차담과 현장 대화를 통해 포교가 일방적 전달이 아닌 공동체적 실천임을 체득했습니다.

캠퍼스 포교 현장에서 얻은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포교는 '권유'가 아니라 학생들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둔 경험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경험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 주도와 운영 매뉴얼을 갖춰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돼야 합니다.

개인의 부단한 노력만으로는 캠퍼스 전법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학교법인과 건학위원회의 제도적 뒷받침, 불교계의 신뢰와 후원, 그리고 학생들의 자발적 실천이 맞물릴 때, 전법은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작동하는 길을 갖게 됩니다.



정완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 조교수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① 연재를 시작하며



내소사 꽃살문.

저는 사진 찍는 할머니입니다.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부터 줄곧 사진만 찍어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살기 위해 '거리 두기'가 강고하게 실천될 때, 산중 사찰만큼은 자유로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진가로서 오래전부터 매혹당한 사찰의 '꽃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불교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꽃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주문을 비롯해 사찰 문은 죄다 '들어오라는 문인지, 나가라는 문인지'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한 채 꽤 오래 헤맸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한 것은 '문'이 아닌, '나'의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문'을 찾는 데 스마트폰은 훌륭한 도구가 돼 주었습니다. 육체와 가장 밀착된, 육체의 확장으로서 스마트폰에 나를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맨몸'으로 다가가 스마트폰으로 만난 꽃문은 저의 내면 풍경입니다. 인간에 다가온 모든 풍경은 몸과 마음이 인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신체성은 풍경에 다가가는 데 걸맞은 도구였습니다. 꽃문을 찍으면서 화면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저녁 예불 범종 소리를 담고자 했습니다.

저의 이 도전이 우리나라 사찰 꽃문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느끼는 데,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작으나마 아이디어의 촉매로 소용된다면 더 바랄 바 없겠습니다.

손영자 작가



몸을 잃어버린 불교, 다시 몸을 묻다

현불논단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나는 2016년부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불교상담을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학교에 불교학과가 사라지고, 대신 '소마틱심리치료학'이라는 새로운 교과 과정이 신설됐다. 예견된 변화였지만, 안타까움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불교학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반면, 소마틱심리치료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 현상을 단순히 시대의 유행이나 학문적 트렌드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현대어로 충분히 번역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고통받는 이들 삶에 피부로 와닿게 전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소마틱(somatic)'이란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몸'을 뜻한다. 소마틱심리치료는 마음의 문제를 몸을 통해 다루는 접근으로, 트라우마와 불안, 과각성과 해리 같은 현대인의 고통을 신체감각, 호흡, 긴장과 이완, 안전감의 회복이라는 몸의 언어로 접근한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발견일까? 소마틱의 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과 다른 걸까?

불교 수행을 떠올려 보자. 부처님은 처음부터 몸을 떠난 수행을 말씀하지 않았다. 호흡을 관찰하라고 했고, 걷고 앉고 눕는 몸의 자세를 알아차리라고 했으며, 신념처(身念處)를 수행의 첫 자리로 두었다. 마음은 언제나 몸의 감각과 느낌 위에서 관찰됐고 몸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법이 드러나는 자리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느

마음을 몸으로 접근하는 소마틱 치료
이미 부처님이 오래전 말씀하신 것들
'마음 종교'로만 읽힌 불교 되돌아봐야

순간 불교를 '마음의 종교'로만 이해하게 됐다.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은 마음의 전환을 강조해 왔다. 〈반야심경〉, 일체유심조, 화두와 간화선은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몸은 점점 말해지지 않게 됐고, 수행의 장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시대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관념적인 깨달음의 언어만으로 위로받지 못한다. 불안한 몸으로 밤을 지새우고 숨 막히는 공포 속에서 하루를 견디며 과거 상처가 몸의 반응으로 되살아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이들에게 "마음을 바꾸라"는 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음은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교가 아니라 소마틱을 찾는다. 교리가 아니라 지금 이 몸이 조금이라도 안전해지는 경험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현상을 불교의 패배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불교가 스스로를 되돌아볼 기회라고 생각한다. 소마틱심리치료가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들은 부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들이다. 우리가 놓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을 몸의 언어로 전달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인도에서 명상할 때 지도자는 "몸은 사원"이라고 말했다. 사원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공간이고, 늘 돌보고 정화해야 하며, 수행이 실제로 이뤄지는 자리다. 이 모든 의미는 그대로 몸에 옮겨진다. 몸은 소모하거나 밀어붙일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자리이며, 수행은 관념이 아니라 이 몸을 돌보는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일어난다. 몸을 돌보는 수행은 세속적인 자기 관리가 아니라, 이번 생을 통해 드러나는 해탈의 도량이다.

신념처는 경험 중심으로서의 몸이다. 수행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몸에서 일어난다. "뇌는 생각보다 덜 이성적이고 마음은 뇌보다 더 몸에 가깝다"란 현대 과학의 말은 불교의 오래된 통찰을 재확인해 주는 말처럼 들린다.

세대 명칭은 어떻게 폭력이 되는가

세간과 출세간



이명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드라망연구소장

김춘수(金春洙)의 시 '꽃'에는 잘 알려진 구절이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이 시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행위는 존재를 알아보고 관계를 맺고 상대를 존중하는 행위다. 이름이 불린 누군가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닌 존재로 드러나며, 자신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이름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힘을 가진다. 그러나 이름이 언제나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름은 관계를 여는 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인가를 가두는 틀이 되기도 한다. 세대를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들이 그렇다. '베이비붐 세대, X세대, 신세대, Y세대, Z세대, MZ세대, 386세대, IMF세대, N포세대' 등등. 이렇게 다양한 세대 이름들은 현실을 설명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했지만, 현실을 규정하고 적대하는 언어로 변질되고 있다. 일례로 '영포티(Young Forty)'는 트렌디한 감각과 경제력을 갖춘 '젊은 40대'를 뜻했으나, 최근에는 억지로 젊은 척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구태의연한 행동을 일삼는 중년층을 비꼬는 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불교는 이름이 지닌 이러한 위험성을 항상 경계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대상은 특정한 무엇으로 개념화되고 경계가 생기고 형식화되며, 곧 고정된 이미지가 된다. 불교가 경계하는 지점은

특정 연령·성별·정치 성향에 혐오 호칭
상대 적대시·멸절 염원의 언어 확산돼
분별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보는 연습해야

바로 여기다. 이름은 이해를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대상을 단순화하고 왜곡한다. 최근 한국사회의 분위기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특정 연령 집단이나 성별, 정치적 성향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운다. '영포티, 한남, 한녀' 같은 말은 이제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비난의 표지가 되었고, '틀딱충, 급식충' 등과 같은 혐오의 언어도 아무렇지 않게 소비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표현들이 언론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를 적대시하고 멸절을 염원하는 언어가 어느새 일상이 됐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안은 단순하다. 이름에 구속되지 말자는 것이다. 어떤 집단도 단일하거나 균질하지 않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라도 구체적 경험과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 다양한 특성이 혼재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관계와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영포티도, 이대남도, 이대녀도, 586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조건이 교차하는 지점일 뿐이다. 이를 놓칠 때 이름은 폭력이 된다. 다양한 삶의 환경과 조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묶어 버리고 분노와 조롱을 투사한다. 우리와 같은 구체적인 이웃인 개인의 얼굴과 삶을 보지 않고, 그 혹은 그녀에게 덧붙여진 '딱지'만을 본다. 이름에 사로잡혀 '여실지견(如實知見)', 즉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사유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연습이다. 그 사람에게 붙은 세대 명칭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지금의 환경과 조건을 먼저 묻는 것이다. 자비는 분별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이름을 부르되, 그 이름에 사람을 가두지 않는 사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이름을 불러 꽃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새해 첫 아침 연 '자비의 108배'

2026년 병오년의 첫 아침,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108배로 새해를 열었다.

이날 진우 스님과 108배를 올린 이들의 면면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의 유가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까지. 사회의 안전망 밖 혹은 차별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다.

108배 후 열린 간담회에서 진우 스님은 성소수자들의 목소리와 정부의 방관으로 힘겨워하는 서울 동자동 주민들의 상황, 쿠팡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잇따른 사망사고, 이주민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등 구체적 현안을 경청했다.

차별·빈곤·재해로 고통받는 이들 보듬어
고통 원인 직시하고 해결 위한 노력 약속

이들의 절박한 이야기를 들은 진우 스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자비로 보듬는 게 불교가 해야 할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수렴된 고충과 현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정책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의 만남은 그간 이어져 온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보의 연장선이자 향후 조계종의 책무를 예고하는 장면이다. 조계종은 지난 수년간 사회노동위원회를 필두로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해 왔다.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규탄하는 연대활동을 적극 펼쳤고,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진우 스님이 취임 이후 매년 새해 첫 행보로 소외 이웃을 찾는 것은 이러한 종단의 자비 행보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다짐이다.

특히 불교계가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의 언어를 건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위해 목소리를 냄으로써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그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태도는 자비행의 현대적 구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진우 스님의 신년사에서도 드러난다. 진우 스님은 1월 5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식에서 "불교는 도량 안에 머무는 가르침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실천의 종교"라며 "사회적 약자, 갈등과 상처의 현장, 불안과 불신이 깊어진 공동체 속에서 불교의 자비와 지혜가 실제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굳건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의 새해 첫 행보에 불자들은 바랄 것이다. 새해 벽두 세운 원력이 지속적인 실천으로 구현되기를. 고통의 자리에 가장 먼저 가서 함께 울고, 듣고,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도록 행동하는 종단이기를. 연대의 자리에 선 총무원장 스님의 발원이 불자 모두의 서원이 되기를.

2026년 한 해, 불교계가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고 자비 행보를 쉼 없이 이어감으로써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이주노동자가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고,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으며, 빈곤층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불국정토'가 구현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1월 14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1월 1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1월 1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70년(2026) 1월 14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Tel 8017-1010 Fax 8017-1011